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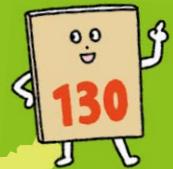


다마 도쿄 이관 130주년  
기념 로고 마크



『에도 명소 도회 (시바자키 후사이지)』에서 발췌 (부분),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협력: 하쿠분

다마 도쿄 이관 130주년 기념



# 다마 시정촌의 변천



공익재단법인 도쿄 시정촌자치조사회



다마 도쿄 이관 130주년 기념  
다마 시정촌의  
변천

# 머리말

올해(2023년도)는 다마 지역이 가나가와현에서 도쿄부(도쿄도의 전신)로 이관된 지 130년째에 해당합니다. 이를 기념하여 120주년 기념으로 발행한 소책자 『다마 시정촌의 변천』을 130년 버전으로 개편하여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컴팩트하고 누구나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며 "그렇구나" 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한다'는 120주년 기념 책자의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층 더 친숙해지기 쉽도록 새로운 캐릭터를 비롯해 일러스트와 만화를 도입했습니다.

130년 동안 변화한 행정의 동향과 생활에 관한 인프라 및 주택지 등의 생활 기반을 기록하는 것은 변함없지만, 120주년 기념 책자 발간 이후에 일어난 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최근 10년 동안 경험한 '미증유의 재해 대응' 및 다마 지역 관련 화제가 많았던 도쿄 2020 대회 등 '문화·스포츠의 제전'을 새로운 장으로 추가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보셔서 다마 지역의 시정촌에 관한 지금까지의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130년을 돌아보는 시간!



아유미짱



야마토

사쿠라

공익재단법인 도쿄 시정촌자치조사회

# 목차

- 3 제1장 가나가와현에서 도쿄부로
- 5 다마군의 분할과 메이지의 대합병
- 7 동서인가? 남북인가?
- 9 도쿄부 이관 문제
- 11 제2장 도쿄의 확대와 다마 지역
- 13 별장·행락지·묘지의 확대
- 15 전력의 보급과 학원도시
- 17 도시계획의 시작과 도쿄 녹지계획
- 19 제3장 도제 편입 운동과 독립 현 구상
- 21 도제 편입 운동과 '다이토교시'
- 23 다양한 독립 현 구상
- 25 도제의 성립과 다마의 시정촌
- 27 제4장 다마의 공도화와 전후 부흥
- 29 다치카와 비행장 개설과 군 관련 시설의 확대
- 31 쇼와 시대 전기의 산업과 행정
- 33 미군 기지와 다마

- 35 제5장 고도 경제 성장과 다마 행정의 변화
- 37 쇼와의 대합병과 다마
- 39 그린벨트 반대 투쟁과 다마 뉴타운 건설
- 41 '3 다마 격차'와 그 해소
- 43 제6장 미증유의 재해에 대한 대응
- 45 간토 대지진과 다마 지역의 피해
- 47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동일본 대지진) 과 피해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활동
- 4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
- 51 제7장 문화·스포츠의 제전
- 53 다마 도쿄 이관 100주년 기념사업 TAMA 라이프 21
- 55 스포츠 축제 도쿄 2013
- 57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 59 종장 앞으로의 다마
- 63 참고 문헌
- 65 '# 오시타마 포토 콘테스트' 수상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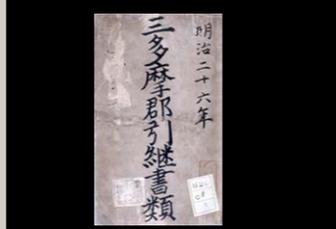


다마 도쿄 이관 130주년 기념

# 다마 130년의 변천



메이지 26년 (1893)



출처: '메이지 26년 (1893) 3 다마군 인계 서류' 도쿄도 공문서관 소장

## 1893 다마 도쿄 이관

메이지 26년(1893) 2월 18일, 도쿄부 및 가나가와현 경역 변경에 관한 정부안이 제출되어 4월 1일부터 3다마군은 가나가와현에서 도쿄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법안 제출 후 불과 한 달 남짓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관 이유는 도쿄의 수원 보호 등을 들었습니다.



훗사시 닛코바시 다리 메이지 36년 (1903) 촬영



출처: '구니타치의 대략한 조경도' 구니타치 향토문화관 소장

## 1926 간토 대지진 후의 학원도시 계획

지진 재해 후 도심에서 교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하코네 토지 주식회사는 구니타치·고다이라·오이즈미 등의 학원도시를 개발. 다이쇼 15년(1926) 구니타치역이 개업. 역 앞 광장과 대로를 조성하고 상하수도를 갖춘 구니타치 대학촌을 조성했습니다.



구니타치시 구니타치역 앞 다이쇼 15년 (1926) 촬영



출처: '남측 상공에서 본 다치카와 비행장', '사진집 다치카와'에서 발췌. 다치카와시 교육위원회

## 1937 군사시설과 군수공장의 진출

다이쇼 11년(1922) 다치카와무라에 다치카와 비행장이 개설되면서 군사 시설과 민간 군수공장이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하치오지가 직물의 도시 '상도(桑都)'로 알려진 데 비해 다치카와는 '공도(空都)'에서 '군도(軍都)'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히가시야마토시 히타치 항공기 다치카와 공장 쇼와 14년 (1939) 경 촬영



출처: '최근 시의 스와야마이 공회 버스정류장' 다마 뉴타운 개발의 궤적'에서 발췌. 게이오엔지니어링연구소 소장

## 1971 다마 뉴타운 입주 시작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 개발 계획, 다마 뉴타운 구상이 책정되었습니다. 입주 초기에는 게이오 사가미 하라선과 오다큐 다마선이 개통되지 않아 도심 통근은 버스 이용이 필수였습니다.



레이와 5년 (2023)



## 2000 남북 방향 대중교통망 확충

헤이세이 10년(1998)에 다치카와키타~가미카타다이 구간이, 헤이세이 12년(2000)에 다마 센터~다치카와키타 구간을 연결하는 다마 도시 모노레일이 개통. 남북 방향의 교통 편의성이 향상되고 사람 간 교류와 지역 간 연결이 더욱 촉진되어 갔습니다.



하치오지시 JR 하치오지역 레이와 3년 (2021) 촬영

# 제 1 장 가나가와현에서 도쿄부로

다마는 인기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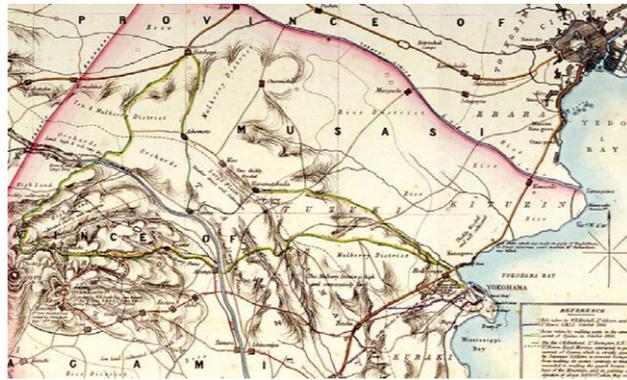


# 다마군의 분할과 메이지의 대합병

## 메이지 유신과 다마군

메이지 초년(1868), 메이지 정부는 도쿠가와 막부의 직할령과 하타모토령에 부와 현을 두고 번은 그대로 유지하는 부번현 3치제를 시행했습니다. 대부분이 직할령과 하타모토령이었던 다마군은 시나가와현, 니라야마현, 가나가와현, 구 다이묘령의 비지(飛地)(히코네번, 마에바시번, 이와쓰키번, 류가사키번, 니시바타번)로 나뉘었습니다. 시나가와현에는 간토 대관 지배소와 하타모토 지행지(영지)의 마을들, 니라야마현에는 니라야마 다이칸(지방관) 지배소의 마을들, 가나가와현에는 요코하마 거류지 10리 이내의 외국인 유보지(遊步地)<그림1>가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1> 요코하마 주변 외국인 유보 구역도 (부분 발췌, 메이지 4년(1871)경, 요코하마 개항자료관 소장)



막부 말기 개국 이후 외국인은 거류지에 거주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거류지 주변에는 외국인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유보지가 조성되었다. 요코하마 거류지의 북단은 다마가와 강 오른쪽 기슭까지로, 하라마치다·하치오지·히노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가나가와현과 도쿄부로 나뉜 다마군

메이지 4년(1871)에 폐번치현(廢藩置縣: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이 실행되어 부현(府縣) 2치제로 이행합니다. 당초 다마군은 도쿄부와 이루마현에 속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가와현이 외국인 유보지를 관할하므로 해당 지역은 가나가와현에 둘 것을 정부에 청원했습니다.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 도쿄부와 이루마현에 대해 다마군을 가나가와현에 인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가나가와현의 요청은 외국인 유보지 부분뿐이었지만, 다마군 전체가 가나가와현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 조치에 대해 도쿄부에 인접한 다마군 동부의 마을들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에도 도쿄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관계가 깊어 가나가와현에 속하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한 것입니다. 이 청원은 정부에 인정되어 메이지 5년(1872) 8월, 나카노무라 외 31개 마을이 도쿄부로 이관되었습니다(현재의 나카노구와 스기나미구에 해당합니다). 다마군은 가나가와현과 도쿄부로 분할되었습니다<그림 2>.

대구·소구제 시대의 가나가와현 (메이지 7, 8년(1874, 1875) 무렵)      다마 3군 시대의 가나가와현 (메이지 11~26년(1878~1893))      다마 도쿄 이관 후의 도쿄부와 가나가와현 (메이지 26년(1893)~)



<그림 2> 다마군 관할의 변천 (고다이리시 중앙도서관 『다마 도쿄 이관 전사(前史) 자료전 도록』에서 발췌)

## 군청 설치

메이지 11년(1878)에 군구정촌 편제법이 제정되자 옛 군은 행정 구획이 되어 군청과 군수가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면적이 넓은 군은 분할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나가와현에 속한 다마군은 기타타마군·미나미타마군·니시타마군으로 분할되었고, 도쿄부에 속한 다마군은 히가시타마군이 되어 각각 군청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후 히가시타마군은 메이지 29년(1896)년에 미나미타마군과 합병하여 도요타마군이 됩니다.

## 역참·촌에서 정·촌으로 - 메이지의 대합병 -

에도 막부 말기의 다마군에는 400개 가까이 되는 역참과 마을이 있었는데(구고 구령 취조장(舊高舊領取調帳)), 막부 직할령, 하타모토령, 사찰·신사 소유지, 다이묘 비지 등으로 분산되어 여러 영주가 한 마을을 따로 지배하는 상급(相給) 마을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별 분산적으로 지배된 마을들은 메이지 정부에 의한 중앙집권체제 확립을 위해 일원적인 통치로 이행해 갑니다. 호적구제, 번조제, 대구소구제, 일촌호장제, 연합호장제 등을 거쳐 메이지 22년(1889)에 정촌제를 시행합니다. 시행할 때 정(町)과 촌은 법인격을 가지는 근대적인 지자체가 되도록, 마을들의 합병이 실시되었습니다. 각 군수가 합병 예상안을 작성하여 지역의 조정을 도모한 것입니다. 이 개혁은 '메이지의 대합병'이라고 불리며, 3다마군은 6개 정, 85개 촌이 되었습니다<그림 3>.

<그림 3> 메이지 24년(1891) 당시의 채색 가나가와현 약도(국립공문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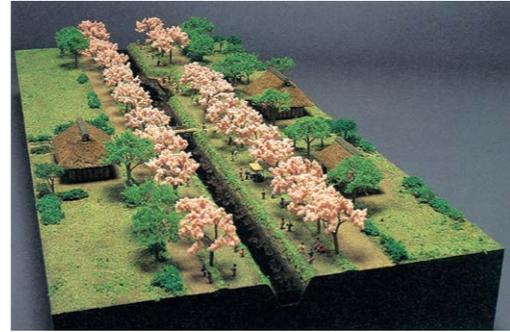
400 개의 역참과 마을이 합병하여 6 개의 정과 85 개의 촌이 되었구나



# 동서인가? 남북인가?

## 다마의 철도 전사(前史) - 동서 축의 성립과 강화 -

다마 지역은 원래 에도성 건축 시에 흰 벽용 석회를 산출하였고 이 수송을 위해 오메 가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다마 지역의 신탄 개발이 진행되자 에도로 출하되는 농업산품도 증가하여 에도 시대(1603~1867)의 다마 지역은 고슈 가도·이쓰카이치 가도·오메 가도 등 동서 방향을 축으로 한 교통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메이지 3년~5년(1870~1872)까지 다마가와 상수를 이용한 통선 사업<사진1>이 성립된 것도 이러한 동서 방향의 교통 체계를 강화할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사진 1 > 다마가와 상수 통선 모형 (고다이라이시 중앙도서관 『다마 도쿄 이관 전사 자료전 도록』에서 발췌)

## 비단길의 성립 - 남북 축의 등장 -

이러한 동서 방향을 축으로 한 교통 체계가 일변한 계기가, 에도 막부 말기의 요코하마 개항입니다. 안세이 6년(1859)에 맺어진 수호통상조약에 의해 요코하마에서 대량의 생사(生絲)가 수출됩니다. 이 수송을 위해 하치오지에서 요코하마로 가는 가나가와 왕환(往還)이 '비단길'로 이용되었습니다. '비단길'에서는 야마나시·나가노현산 생사도 운반되어 다마 지역과 요코하마를 연결하는 남북 방향의 교통 체계를 증시하게 되었습니다.

## 동서인가? 남북인가?

메이지 유신 이후 다마 지역에서도 철도 부설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다마가 도쿄로 이관되기 이전인 메이지 19년(1886)에는 도쿄와 하치오지를 연결하는 고부 철도(현 JR 주오선), 하치오지와 가와사키를 연결하는 무사시 철도가 연이어 출원됩니다. 가나가와현 지사는 도쿄부를 우회하지 않고 하치오지에서 요코하마로 생사를 운반하는 이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대신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제시한 '수부를 기점으로 하여 다른 각 지역의 주요 구역과 연결'이라는 기본 방침과 오메·도코로자와·한노의 화물은 현재도 도쿄를 경유하여 출하되고 있으므로 동서 방향을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고부 철도에 면허가 발급되어 메이지 22년(1889)에 개업했습니다<사진2>.



< 사진 2 > 고부 철도 개업 당시의 니시키에 (목판화) (다마신 지역문화재단 소장)

## 철도망 확충

다마 지역의 철도망 발달을 정리하면 다음 5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그림1>.

제1기 [메이지 5년~30년(1872~1897) 무렵]

제1차 민영 철도 붐에 편승해 고부 철도가 개업하고, 계속되는 제2차 사철 붐으로 오메 철도·가와고에 철도가 개업했습니다.

제2기 [메이지 30~다이쇼 10년(1897~1921) 무렵]

도쿄 시내의 철도가 정비되어 감과 동시에 교외로 뻗은 가도를 따라 교외 전철이 건설되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게이오 전기궤도, 도쿄자리 철도, 다마 철도, 무사시노 철도 등이 개업했습니다.

제3기 [다이쇼 10년~쇼와 30년(1897~1955) 무렵]

교외 주택지 개발 및 간토 대지진·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도쿄·요코하마 부흥과 재개발을 위해 대량의 자갈 수송이 필요하게 되어 전기화에 의한 고속 수송이 도입된 것이 이 시기입니다. 도시와 교외의 결속이 강해지고 노선 주변의 관광 개발도 진행됩니다.

제4기 [쇼와 30년~헤이세이 12년(1955~2000) 무렵]

인구 급증에 따라 차량의 대형화와 편성의 장대화, 노선의 복선화가 진행됩니다. 자갈이나 석회석 수송에서 활약한 오메선·이쓰카이치선·난부선의 연선도 주택지화가 진행되어 통근 철도로서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동시에 관광객 수송도 증가하여 순환선인 무사시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제5기 [헤이세이 12년(2000) 이후~]

제4기 후반부터 땅값과 건설비가 급등하여 새로운 노선을 건설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다마 뉴타운에 대한 게이오와 오다큐의 새로운 노선 건설은 일본철도건설공단이 철도를 건설하고 철도 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남북을 연결하는 다마 도시 모노레일은 도쿄도의 신교통 시스템으로서 건설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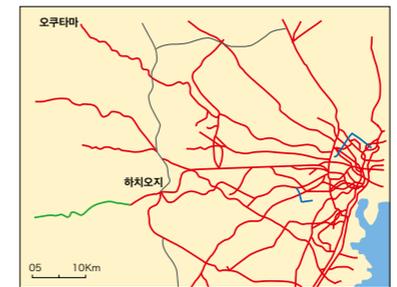
제1기: 메이지 28년(1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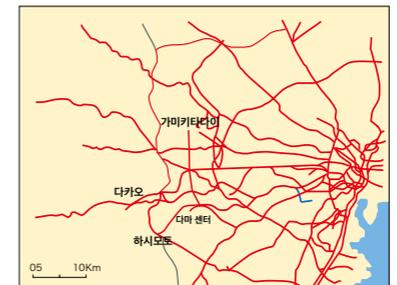
제2기: 다이쇼 9년(1920)



제3기: 쇼와 15년(1940)



제4기: 쇼와 30년(1955)



제5기: 헤이세이 12년(2000)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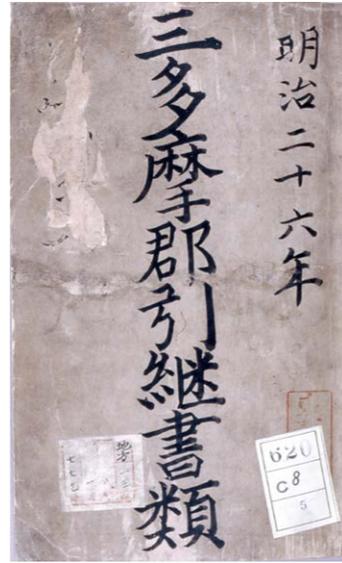
<그림1> 도쿄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의 확립 (아오키 에이치[1976]가 추가)

범례(제1~제5기 공통)  
 — 비전화 철도  
 — 저속 전철  
 — 고속 전철  
 — 전화되어 있으나 운전 간격이 긴 구간  
 ※도쿄 시영 궤도, 화물선, 신칸센은 생략

# 도쿄부 이관 문제

## 3 다마군 이관의 경위

메이지 26년(1893) 2월 18일, 중의원에 도쿄부 및 가나가와현 경역 변경에 관한 정부안(서남북 다마 3군의 도쿄부 이관)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관 이유로는 도쿄시의 수도 개량 사업을 위해 수원의 함양 보호와 삼림 남벌의 단속이 필요한 점, 원래 3다마군은 히가시타마군과 한군을 이루고 있어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법률안은 제4의회의 마지막 날 2월 28일에 귀족원·중의원을 모두 통과해 3월 4일 법률 제12호로 공포되어 4월 1일부터 3다마군은 가나가와현에서 도쿄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법안 제출에서 이관 실시까지, 불과 한 달 남짓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사진1>.



< 사진 1 > 이관을 기록한 공문서 (도쿄도 공문서관 소장)

## 이관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 갑작스러운 법안 제출은 3다마 군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미나미타마군과 니시타마군에 큰 기반을 가지고 있던 산타마 자유당은 도쿄부의 지방세를 감당할 수 없으며 가나가와현의 지방세 경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격렬한 반대 운동을 일으킵니다. 다수의 가나가와현의회 의원이 이관 반대를 표명했으며 미나미타마·니시타마군의 모든 정촌(町村)과 기타타마군 5개 촌의 정장과 촌장, 조역(助役)이 귀족원·중의원에 반대 청원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정장과 촌장, 조역(助役)이 해당 직위를 사임해 사무소가 일시 폐쇄되고 정촌 행정은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그림1>.

### COLUMN

#### 이시자카 마사타카와 요시노 다이조

미나미타마 자유당의 이시자카 마사타카와 기타타마군 정의파의 요시노 다이조는 덴포 12년(1841)생으로 동갑입니다. 두 사람은 다마의 자유 민권 운동을 이끈 대표적 인물로, 가나가와현의회 의원과 자유당 상의원을 지냈습니다. 메이지 20년대에 들어선 후 결별하고 이관 문제에서는 대립했습니다. 두 사람의 딸인 이시자카 미나와 요시노 리우는 나이는 다르지만 함께 요코하마의 공립여학교에 다녔습니다.



이시자카 마사타카 (『이시자카 마사타카와 그 시대』에서 발췌)



요시노 다이조 (미타카시 교육위원회 발행 『다마의 민권과 요시노 다이조』에서 발췌)

## 이관에 찬성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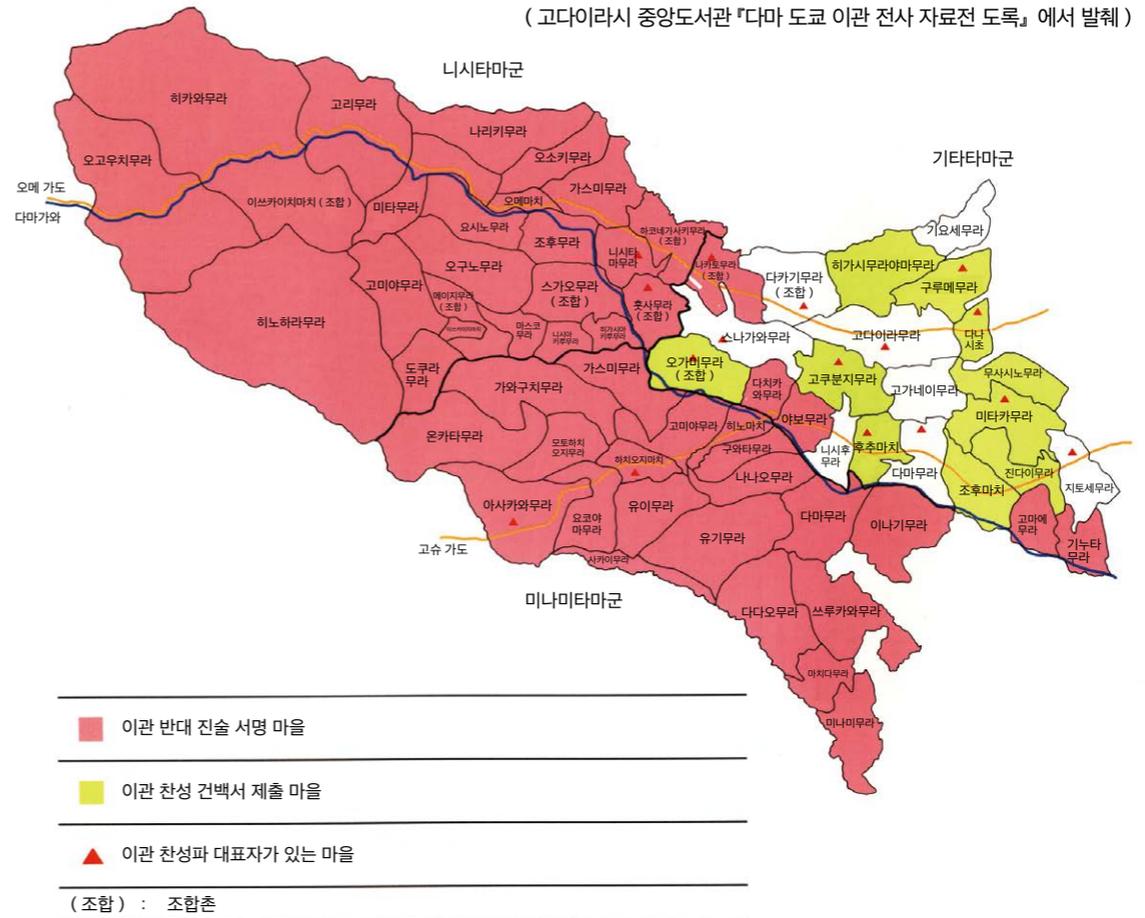
한편, 이관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메이지 22년(1889)에 고부 철도가 개통하기도 하여 기타타마군 정의파·국민협회계 사람들은 지리적인 편리성, 경제적 우위를 근거로 도쿄부로의 이관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이듬해인 메이지 23년(1890)에는 기타타마군 동부의 5개 정촌이 도쿄부 히가시타마군과의 합병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이 구상은 군청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되었고 5개 정촌 이외의 찬성을 얻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도쿄부 이관을 바라며 법안 찬성 청원과 진정을 제기했습니다<그림1>.

## 이관 후의 상황

도쿄부 이관의 표면적인 이유는 도쿄시의 수도 개량 사업 등이었지만, 자유 민권 운동이 왕성했던 산타마 자유당을 가나가와현의회에서 배제하고 그 약체화를 꾀하는 것이었다고도 합니다. 이관을 둘러싼 이면의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관 후 산타마 자유당은 도쿄부의회에서 세력을 키웠고, 이관에 찬성한 기타타마군 정의파는 침체되었습니다. 이관 후에 가나가와현으로의 복귀 운동이 일어나지만, 길게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 그림 1 > 이관을 찬성 또는 반대한 정촌 (고다이라시 중앙도서관 『다마 도쿄 이관 전사 자료전 도록』에서 발췌)



- 이관 반대 진술 서명 마을
- 이관 찬성 건백서 제출 마을
- ▲ 이관 찬성파 대표자가 있는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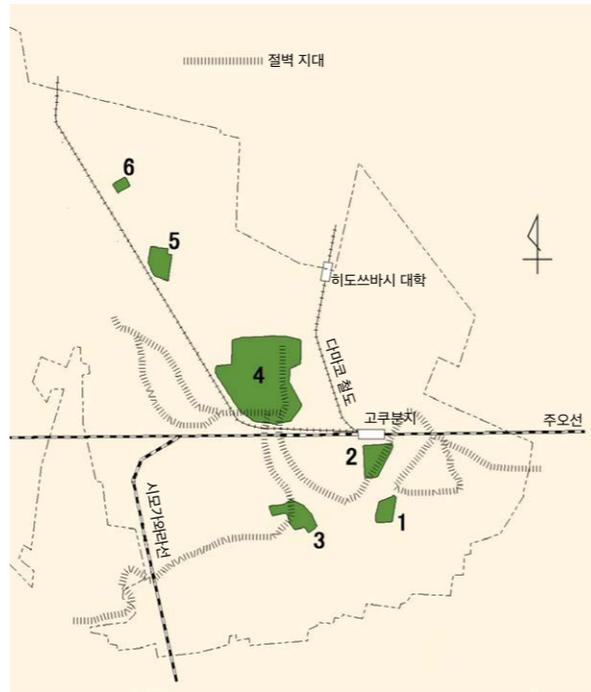
(조합) : 조합촌



# 별장 · 행락지 · 묘지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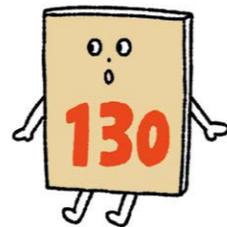
## '무사시노'와 별장

교외 철도가 부설되고 도쿄 도심부와 다마 지역의 결속이 강해지면서 농촌 지대였던 다마 지역의 성격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무사시노의 경관을 활용한 별장들이 들어선 것입니다<그림 1>. 특히 '하케'라고 불리는 고쿠분지의 절벽 지대를 사이에 두고, 하케 위와 하케 아래의 고저차를 도입한 정원 조성이 이 지역만의 정취로서 적극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그림 1 > 고쿠분지 시내의 주요 별장 (다이쇼 시대 (1912~1926) 말기) ('고향 고쿠분지의 변천'에서 발췌)

별장 명칭	소유자 주소	취득 연도
1 다케오 도노스케 별장	간다구 니시키초	1919
2 에구치 사다에 별장 1)	우시고메구 야카기시타마치	1915
3 아마노 게이지로 별장	아사쿠사구 니시토리고에마치	1914
4 이마무라 시게조 별장 2)	니혼바시구 미나미카야바초	1918
5 와타나베 부자에몬 별장	시바구 사쿠라다쿠보초	1914
6 도요하라 세이사쿠 별장	간다구 마쓰즈미초	1912



1) 현 도노가야토 정원, 2) 현 히타치 중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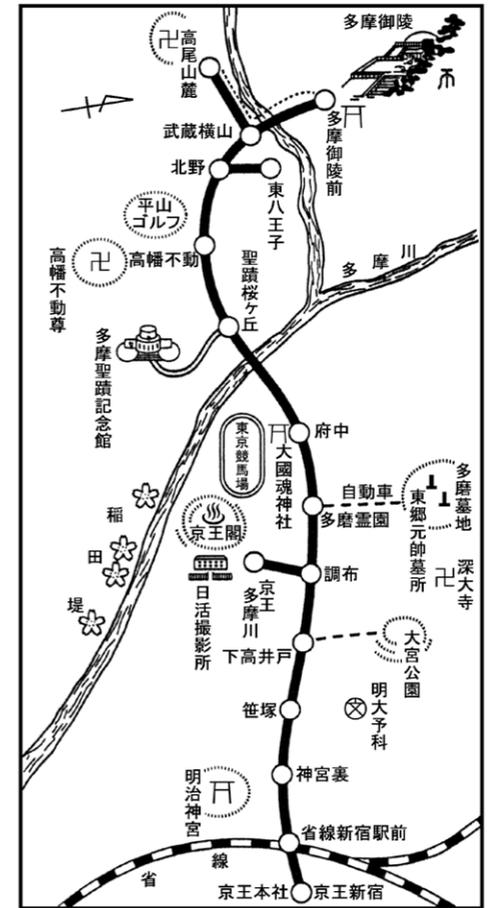
### COLUMN

#### 다마코 호수, 오키타마코 호수 건설

도쿄 도심부의 과밀화는 심각한 물 부족을 야기합니다. 이에 따라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마가와 강의 물에 주목해 다마코 호수(무라야마 저수지, 쇼와 2년(1927) 준공), 오키타마코 호수(오고우치 댐, 쇼와 32년(1957) 준공)가 건설됩니다. 그 옛날 다마가와 상수가 에도 시민의 수원으로서 불가결한 존재였듯이, 오늘날에도 다마는 도쿄도민을 위한 수원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증가

이와 동시에 철도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연선 개발이 진행되어 갑니다. 예를 들어 게이오 전기궤도의 연선에서는 게이오카쿠가 쇼와 2년(1927)에 건설되어 전체를 대리석으로 시공한 로마 목욕탕과 각종 놀이시설·연예장, 회전목마 등을 설치하였고 이듬해에는 연간 16만 명이 넘는 방문객으로 붐볐습니다. 또한 다마고료(황실 묘지), 다마 성적(聖蹟) 기념관, 다카오산 외에도 봄에는 이나다쓰쓰미의 벚꽃, 가을에는 다마가와 배(과일) 등 계절에 맞춰 고객 유치에 도모했습니다<그림 2>. 이러한 연선 개발은 고부 철도(현 JR 주오선)가 근세부터의 명소인 고가네이 벚꽃을 고객 유치에 이용한 것과는 달리, 새로운 관광 자원을 전략적으로 창출한 점이 특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시설로는 오메 전기철도(현 JR 오메선)의 직영 유원지 라쿠라쿠엔, 다마코 철도(현 세이부 다마코선)의 무라야마 저수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고도 경제 성장기와 버블기에 테마파크 건설 붐이 일어났지만, 레크리에이션의 다양화 등으로 인해 폐원한 곳도 많습니다<표 1>.



< 그림 2 > 게이오 전기궤도 연선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쇼와 15년 (1940) 경)

< 표 1 > 다마 지역의 주요 테마파크

명칭	개원 연도	폐원 연도
다마 테크	1961	2009
요미우리랜드	1964	
도쿄 서머랜드	1967	
도쿄 세서미 플레이스	1990	2006
산리오 퓨로랜드	1990	
완냥 월드	2001	2009
도쿄 무쓰고로 왕국	2004	2007

## 마지막 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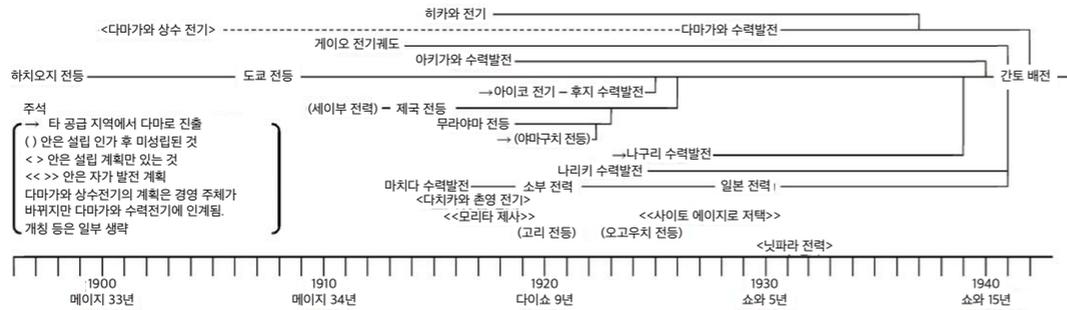
다마 지역의 변화는 항상 도쿄 도심부의 변화와 연동되어 왔습니다. 도심부의 과밀화는 광대한 면적을 필요로 하는 공원, 대학 등이나 도시 내부에서 존재가 기피되는 묘지, 병원 등의 시설을 교외로 밀어내게 됩니다. 메이지 시대(1868~1912)의 도쿄 시내에는 아오야마 묘지를 비롯해 총 5개의 시영 묘지가 있었지만, 시가지화와 인구 증가에 따라 묘지가 부족해집니다. 이 때문에 다이쇼 8년(1919)에 '도쿄시 묘지 및 유사 시설 설계 계획안'에 따라 도쿄 교외의 동쪽·서쪽·북쪽에 넓은 공원 묘지를 창설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 계획에 근거해 다마 영원(다이쇼 12년(1923)), 고다이라 영원(쇼와 23년(1948))이 개원하였고, 추가로 묘소를 확보하기 위해 도쿄도는 하치오지 영원(쇼와 46년(1971))을 개설했습니다. 이 밖에 다수의 민간 묘지가 구릉 지대에 건설되었습니다.

# 전력의 보급과 학원도시

##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다

다마 지역에서 전등이 켜진 것은 메이지 29년(1896)으로, 하치오지 전등 주식회사가 아사카와무라에 설치한 수차를 이용해 하치오지마치·아사카와무라·고미야무라(모두 현 하치오지시)에 전등을 공급한 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아도 빠른 편으로, 다이쇼 시대(1912~1926) 초기에는 전기사업자 설립 붐을 맞아 아키가와 수력발전·나리키 수력발전·히카와 전기·마치다 전등·무라야마 전등 등의 중소 전기사업자가 임립합니다. 그 후 니시타마군을 제국 전등, 미나미타마군을 도쿄 전등, 기타타마군을 게이오 전기궤도가 공급 지역에 포함시켜 다이쇼 시대 말년까지 다마 전역이 대부분 전기화되었습니다<그림 1>.

이 무렵 대규모 수력발전으로 남은 전력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전력 유통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발전 사업은 발전소·송전 설비 등이 필요하지만 전력 유통에 의해 자체 발전 설비가 없어도 개업할 수 있게 되어, 전기가 널리 농촌 지역까지 보급된 것입니다.



< 그림 1 > 다마 지역 전기사업자의 성립과 통합 과정 (『다마의 변천』 100 호에서 발췌)

## 전력의 공업 이용

다마 지역에 많았던 양잠 농가에서는 전등이 켜지면서 지붕 밑 어두컴컴한 잠실 내에서의 작업 효율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면 탈곡이나 제분, 양수·건조등의 노동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공업 부문에서는 전등이 야간 조업을 가능하게 하였고 제다업(製茶業)·제재업·직물업 등 다마 지역 특유의 산업 분야에서도 전동력화가 진행되어 갑니다. 이 밖에 시멘트 채굴이나 운반, 전기 분해·전기 도금 등 중공업에서도 이용되었습니다.

다마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등이 켜진 곳은 하치오지였구나



## 학원도시 개발

간토 대지진 후 도심에서 교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교외 주택 개발을 담당한 것은 철도 회사와 토지 회사였습니다. 하코네 토지 주식회사는 구니타치·고다이라·오이즈미 등의 학원도시를 개발했습니다. 하코네 토지의 쓰쓰미 야스지로는 도쿄 상과대학(현 히토쓰바시 대학)의 사노 젠사쿠 학장과 계약을 맺고, 간토 대지진으로 괴멸적인 피해를 입은 대학을 이전할 계획을 세워 구니타치 대학촌을 건설했습니다<그림 2>.

다이쇼 15년(1926)에 구니타치역을 개업, 역 앞 광장과 24간 폭(약 44m)의 대로(대학로)를 조성하고 상하수도를 갖춘 가구(街區)를 정비했습니다. 그 후 도쿄 고등음악학원(현 구니타치 음악대학), 구니타치 학원초등학교, 도쿄 상과대학이 이전·개교해 학원도시가 형성되어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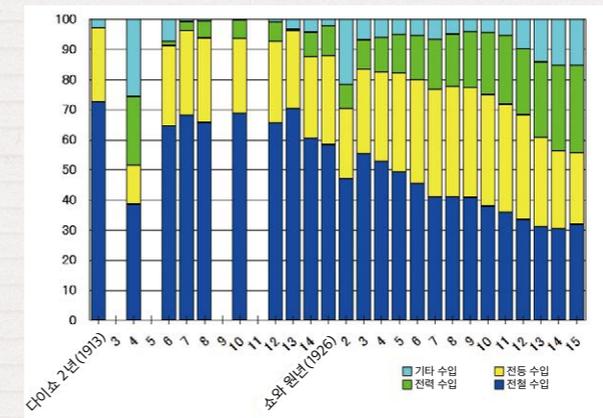


< 그림 2 > 하코네 토지 주식회사의 분양지 매매 광고 (구니타치 향토문화관 소장)

### COLUMN

게이오 전기궤도(주)는 전철업과 전기공급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도쿄 전등(주)의 전력 유통을 받아 기타타마군 일원을 공급 예정 지역으로 하고 있었는데, 전력 이용이 일반화된 결과 쇼와 5년(1930) 무렵부터 본업의 수입 이상으로 전기사업 수입을 얻게 됩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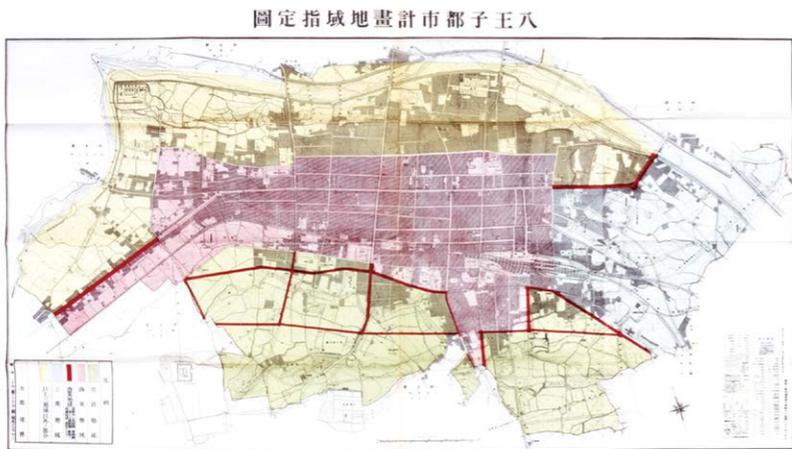
< 그림 3 > 게이오 전기궤도(주)의 수입 구조 추이 (각 연도 『전기사업 요람』을 참조하여 작성)



# 도시계획의 시작과 도쿄 녹지계획

## 다마 최초의 시제와 도시계획 - 하치오지의 발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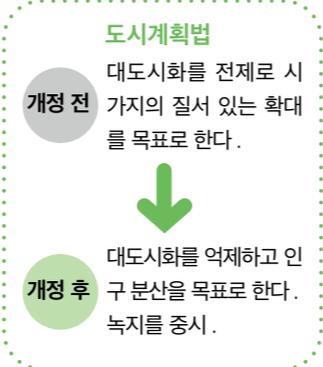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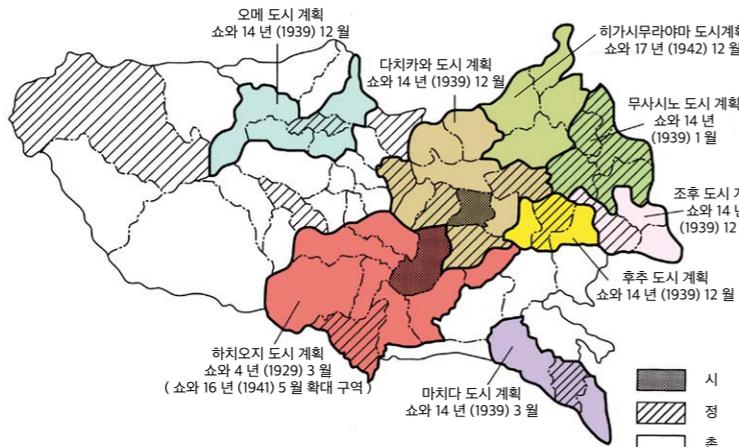
다마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제(市制)를 시행한 것은 하치오지로, 다이쇼 6년(1917)의 일입니다. 직물업의 기계화가 진행되어 직물 공장의 시가지 집중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업도시에서 상공업도시로 발전한 하치오지는 시가지 정비와 새로운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 '오하치오지' 건설을 계획,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쇼와 2년(1927), 도시계획법이 칙령 제35호에 의해 적용되었고 이후 '하치오지 도시계획구역'이 주변 5개 정촌의 각각 일부를 포함하는 형태로 결정됩니다. 당시의 도시계획법이 시를 중심으로 시가지의 확대를 예상해 구역을 결정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치오지'의 확대가 시작되었습니다<그림 1>.



<그림 1> 하치오지 도시계획지역 지정도 (쇼와 7년 (1932)) (『다마 철도와 도시 정비의 변천』에서 발췌)

## 도시계획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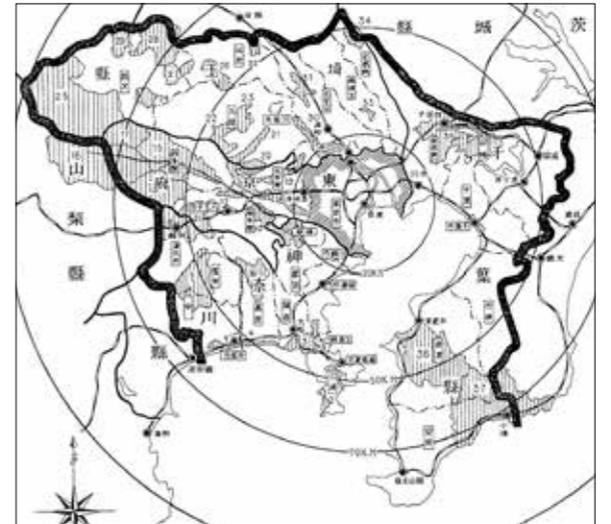
쇼와 8년(1933)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정촌에서도 도시계획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자 다마 지역의 공도화(空都化)(29페이지 참조)를 배경으로 각지에서 법 적용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쇼와 14년(1939) 이후 무사시노, 조후, 후추, 다치카와, 히가시무라야마, 마치다, 오메에 도시계획법이 적용되었고 기타타마 지역은 전역이 도시계획법 시행 대상이 되었습니다<그림 2>. 그러나 이 무렵에는 녹지를 중시하여 대도시화를 억제하고자 하는 생각이 강해져 다마 지역의 용도 지역 지정도 공업지화·주택지화를 억제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림 2> 제 2 차 세계대전 전의 다마 도시계획구역

## 도쿄 녹지계획과 다마

쇼와 7년(1932), 도쿄 시민의 보건과 휴양 등에 필요한 녹지 시설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쿄 녹지계획협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 협회에서는 장래에 자연공원으로 정비할 지구로서 '경원지(景園地)'를 지정했습니다<그림 3>. 또한 대도시의 시가지 확대를 억제하고자 녹지로 도쿄를 둘러싸는 '도쿄 녹지계획'을 책정했습니다. 전시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이를 '방공 녹지'로 실현하고자 하였고 쇼와 15년(1940), 도쿄부의 '기원 2,600년 기념사업'으로 5개의 대녹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마 지역에 조성된 것은 고가네이 녹지와 진다이 녹지입니다. 현재는 각각 도립 고가네이 공원<사진 1>, 진다이 식물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림 3> 도쿄 녹지계획구역과 '경원지' (『도쿄 도시계획 개요』에서 발췌)



<사진 1> 구 고카덴 (에도 도쿄 다테모노엔 비저터 센터) 도립 고가네이 공원 내에 있는 에도 도쿄 다테모노엔의 비저터 센터는 기원 2,600년 기념식전을 위해 황궁 앞 광장에 세워진 고카덴을 이축한 것.

**COLUMN**

**히노 5사의 진출과 하치오지·다치카와**

쇼와 9년(1934) 이후 '히노 5사'라고 불리는 공장이 유치를 통해 히노에 진출했습니다. 공업도시화를 목표로 광대한 도시계획 구역을 설정하고자 한 하치오지와 다치카와는 히노를 자신의 구역에 포함시키려고 경쟁했습니다. 결국 다치카와를 발전시키고자 한 내무성의 생각에 따라 히노는 다치카와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갔습니다.

# 제 3 장 도제 편입 운동과 독립 현 구상

**역시 필요없어?**

음……, 고민되네 ~

역시 이걸로 해야지. 이 책은 이번엔 빠져

사쿠라, 무슨 일이야?

아! 이거 내가 사쿠라한테 소개한 『다마가와 강의 만지로: 격주(激走)편』 이잖아!

재미는 있었는데, 이번 추천 도서에서는 빠려고……

왜 빠는 거야! 만지로도 끼워 줘 ~!

만지로도 고생이네 ~

근데 다마도 옛날에는 만지로와 마찬가지로 따돌림을 당할 뻔했어

이번 추천 도서는 내가 고르는 거야!

도쿄부가 커지면서 부(府)에서 도(都)로 바뀌 제도를 확실히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과 다마를 도쿄에서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거야

만지로 ~ 너도 다마와 같았구나 ~

도쿄부에서 도쿄도로 바뀐 건 언제쯤이야?

그리고 다마 안에서도 합병이나 독립과 같은 움직임도 나타났지

쇼와 18년(1943) 이야. 전쟁이 시작되자 도쿄를 크게 만들자는 의견이 강해져서 다마를 포함시킨 도쿄도가 생긴 거고

드디어 다마가 도쿄도에 포함되었구나

흠, 그치만 같은 도쿄라도 다마는 구가 아니라 시정촌이잖아

23区と市町村

좋은 지적이야!

도쿄도가 탄생했을 때 다마도 구로 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어

앗! 뭐하는 거야 ~!

만지로는 계속 휘둘릴 것 같네

# 도제 편입 운동과 '다이토쿄시'

## 도제의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쇼와 18년(1943)에 도쿄도가 탄생할 때까지는 도쿄도 현재의 오사카나 교토와 마찬가지로 도쿄부 안에 도쿄시가 있는 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지 시대(1868~1912)부터 부(府)와 시를 하나로 통합한 도제(都制)의 필요성은 제기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다이쇼 시대(1912~1926)가 되고 나서였습니다. 도쿄의 대도시화가 진전되어 이중 행정의 낭비가 강하게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도쿄로의 인구 집중은 도쿄시 인접 5개 군(에바라, 도요타마, 기타토시마, 미나미아다치, 미나미카쓰시카)으로의 인구 확대도 수반되었으므로 도제의 구역을 어떻게 할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 다마 지역을 제외한 제도 제안

다이쇼 12년(1923), 제국의회에 '제도(帝都) 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안은 도제의 구역을 도쿄시 지역+인접 5개 군으로 지정하고, 다마의 3개 군을 가나가와현에 편입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마 지역은 이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다마 지역은 메이지 26년(1893) 도쿄부의 수원 관리를 이유로 강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부에 편입되었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마 지역은 도쿄부 편입 후 도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 도제 편입 기성회 결성

가나가와현 편입 반대로 시작된 운동은 그 후 도제 편입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다이쇼 14년(1925)에는 운동의 통일을 도모하여 3다마군 하치오지시 도제 편입 기성회가 결성됩니다. 이는 다마 지역 선출 대의원, 부의회 의원, 각 시정촌장 등이 참여하는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이었습니다. 도쿄시 측의 다마 제외 도제 실시의 움직임에 대항하며 내무성, 국회, 각 정당 본부 등에 끈기 있게 진정을 반복했습니다<사진1>. 다마 지역이 도제에 포함되게 된 것은 이 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사진 1 > 궁성 부근을 행진하는 도제 편입 진정단 ('도쿄와 3 다마'에서 발췌)



편입 기성회 초대 회장 야키모토 기시치 ('다마의 사람들'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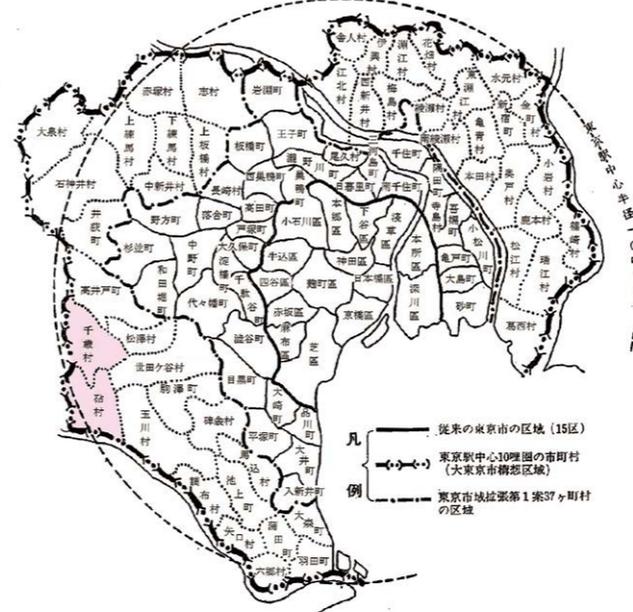
## '다이토쿄시'의 성립과 다마

도제가 좀처럼 실현되지 않자 도쿄시에서는 도제에 앞서 시역 확장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쇼와 7년(1932), 인접 5개 군을 포함한 '다이토쿄시(大東京市)'가 성립됩니다<그림1>. 다마 지역에서는 도쿄에서 다마를 분리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실제로는 운동을 진정시켜 갑니다. 거기에는 내무성, 도쿄부·시와의 사이에 시역 확장 후에는 다마를 포함한 도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암묵적인 양해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 그림 1 > 다마 3 군과 다이토쿄시

< 그림 2 > 도쿄 도시계획구역과 지토세무라, 기누타무라 (공익재단법인) 특별구협의회 '도쿄 23구의 성립'에서 발췌)



< 사진 2 > 나가타 히데지로 도쿄시장 ('도쿄 시역 확장사'에서 발췌)

나가타 도쿄시장<사진2>의 말  
...시 또한 3다마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특별 구역으로 도의 이름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형태로 하면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도의 구역은 새로운 시의 구역으로 제한하고 싶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든 공리해 주었으면 한다.

### COLUMN

#### 지토세무라, 기누타무라의 세타가야구 편입

현재 세타가야구에는 지토세다이, 기누타라는 이름의 정(町)이 있습니다. 그곳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원래 기타타마군의 지토세무라, 기누타무라였습니다<그림2>. 도쿄 도시계획구역이 도쿄역에서 반경 10마일의 땅으로 지정되고, 거기에 2개 마을이 포함됨에 따라 시역으로의 편입 희망이 강해져 시역 확장 후에는 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편입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쇼와 11년(1936), 2개 촌은 세타가야구에 편입된 것입니다.

## 다양한 독립 현 구상

### 하치오지를 현청 소재지로 하는 무사시현 구상

다마 지역은 도제 편입을 요구하며 끈기 있게 운동을 벌였지만, 독립 현을 추구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무사시현 구상도 그중 하나로 제도(帝都) 제안이 나온 다이쇼 12년(1923) 무렵에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무사시현이란 다마의 3개 군과 인접한 5개 군, 총 8개 군으로 하나의 현을 만드는 것으로, 도쿄도와 함께 도현(都縣) 조합을 만들어 보조를 받고자 하는 구상입니다<그림 1>. 무사시현 구상 자체는 메이지 시대(1868~1912)에 정부가 제출한 것이 최초로, 이는 신주쿠에 현청을 두는 안이었지만 다마 지역이 추구한 무사시현은 현청을 하치오지에 두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제(市制)를 시행한 하치오지에 현청을 두고 다마 지역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적극적인 구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치카와를 현청 소재지로 하는 다마현 구상

다마 지역만으로 하나의 현을 만들자는 다마현 구상은 제도(帝都) 제안이 무산된 후 조직된 임시 대도시 제도(制度) 조사회에서 제시된 것입니다<그림 2>. 도현 조합을 만들어 도의 보조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무사시현과 동일하지만, 인접 5개 군은 도제 구역으로 해야 한다는 강한 의견에서 나온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 다마 지역은 다마 지역 단독으로 보조를 받아도 현으로서 자립할 수 없다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다이쇼 14년(1925) 무렵에 이르러 기타타마에서 다마현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었습니다. 그 다마현 구상은 다치카와에 현청을 설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치카와는 다이쇼 11년(1922)의 비행장 개설, 이듬해의 정제(町制) 시행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치오지에 대하여 다치카와를 중심으로 다마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가나가와현 군 지역과의 합병 신현 설치 구상

쇼와 5년(1930) 무렵 요코하마시에서도 요코하마도(都) 구상이 논의되어 가나가와현 군 지역의 취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요시 주이치 요코하마 시장은 다마 지역과 가나가와현 군 지역으로 새로운 현을 만들어 현청을 하치오지에 두자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하치오지시를 중심으로 하는 미나미타마군의 시정촌장으로부터 제기됩니다. 쇼와 5년(1930)에 하치오지시에서는 가로(街路) 계획이 결정되어 시가지의 구획 정리를 위한 움직임도 개시되었습니다. 이 본격적인 도시계획의 진전을 배경으로 하치오지에서는 다시 현청 유치로 통한 지역 개발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다마현을 지지하여 현청 유치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다치카와에 대항한다는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일관되게 도제 편입을 주장한 니시타마

도쿄도로부터 독립된 현을 만들어 현청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모색한 미나미타마, 기타타마와는 달리 일관되게 도제 편입을 요구한 것이 니시타마였습니다. 현청 유치 가능성이 희박하고 도쿄시의 수도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이 니시타마였기 때문에 추정됩니다. 도제 편입 기성회의 초대 회장 아키토모 기시치는 기타타마 출신이었으나 2대 회장 세누마 이해에<사진 1>, 3대 회장 이와나미 고지로<사진 2>는 니시타마 출신이었습니다.



< 사진 1 >  
편입 기성회 제 2대 회장 세누마 이해에  
(『다마의 사람들』에서 발췌)



< 사진 2 >  
편입 기성회 제 3대 회장 이와나미 고지로  
(『도쿄와 3 다마』에서 발췌)

#### COLUMN

#### '3 다마'의 결속

메이지 26년(1893), '3다마'가 가나가와현에서 도쿄부로 이관된 이후 다양한 조직들이 도쿄시에 인접한 5개 군(메이지 29년(1896)에 히가시타마군이 미나미토시마군과 합병해 도요타마군이 될 때까지는 6개 군)과 함께 8개 군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3다마'라는 의식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3다마의 결속을 다시 강화하게 된 계기가 바로 도제 문제였습니다. 운동 속에서 '3다마 정신'이 강조되어 다이쇼 13년(1924)에는 도쿄부나 도쿄시 등에 직장을 가진 3다마 출신자가 3다마 향우회를 결성했습니다. 시역 확장 후에는 부의회에서도 3다마 출신의 의원이 '다마회'를 조직해 독자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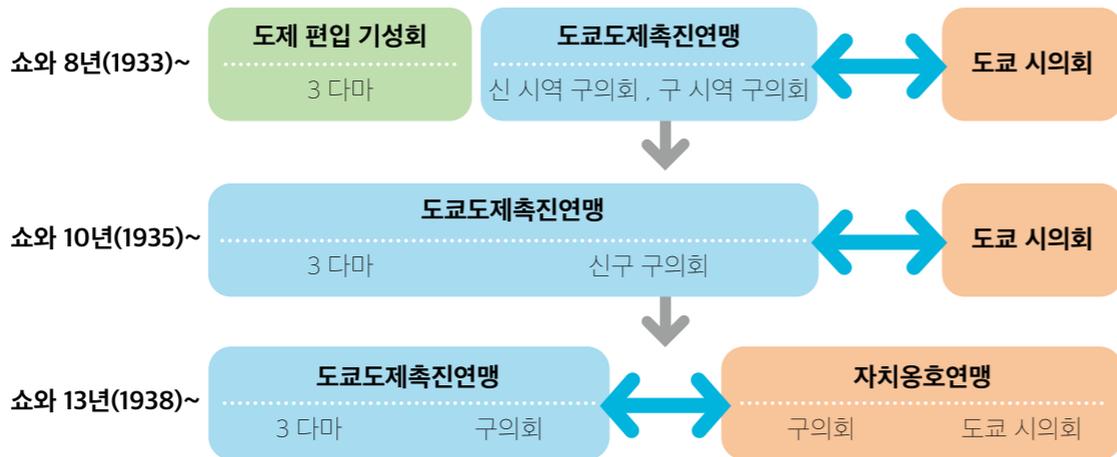
# 도제의 성립과 다마의 시정촌

## 구의회를 둘러싼 도쿄 시의회와 다마의 공방

다이쇼 시대(1912~1926)부터 강하게 주장된 도제는 좀처럼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역 문제 외에 도(都) 장관을 관선으로 선출하느냐, 공선으로 선출하느냐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쿄시의 시역 확장 후 정부는 도 장관 선거, 구역은 다마 지역을 포함한 부역(府域)으로 하는 도쿄 도제안을 정리해 쇼와 8년(1933),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도 장관을 관선으로 선출하는 대신 구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던 신규 시역의 구의회는 도쿄도제촉진연맹을 결성해 법안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다마와 보조를 맞추어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쇼와 10년(1935), 다마와 구의회 세력이 합동하여 신 '도쿄도제촉진연맹'을 결성합니다. 그러나 쇼와 13년(1938)에 내무성이 도 장관을 관선로 선출, 구역은 부, 구의 자치권은 부정한다는 내용의 도쿄 도제안 요강을 발표하자 도 장관 공선을 주장하던 도쿄 시의회는 요강 실현 저지를 위해 자치옹호연맹을 결성하고 각 구의회에도 연맹 가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구의회에서는 3다마와의 연계를 중시하여 요강의 수정 실현을 도모할 것인지, 연맹에 가맹하여 요강 실현을 저지할 것인지 구에 따라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결국 도쿄도제촉진연맹은 분열하고 말았습니다<그림1>.

<그림 1> 3 다마, 구의회, 시의회의 관계도



## 도쿄도의 성립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자 수도 방위 체제 강화라는 관점에서 도제 촉진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한창이던 쇼와 18년(1943) 7월, 도제가 성립됩니다. 도의 구역은 다마 지역을 포함한 부의 구역, 도 장관을 관선으로 선출, 구의 자치권은 부정한다는 내용의 도제였습니다.

## 시정촌제인가, 구제인가

다마 지역에서는 도제 편입 운동 중 시정촌제 그대로 편입을 요구할 것인지, 구제(區制) 시행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의회 의원은 구제 요구가 많았고, 시정촌장은 시정촌 존속의 주장이 강했다고 합니다. 부의회 의원은 회의에서 예산을 받으려면 구 지역과 같은 편이 수월하다고 생각했고, 시정촌장은 구제가 되면 자치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당분간은 시정촌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마 지역은 시정촌 그대로 도제에 편입되었습니다.

### 야마자키 내무차관의 다마 구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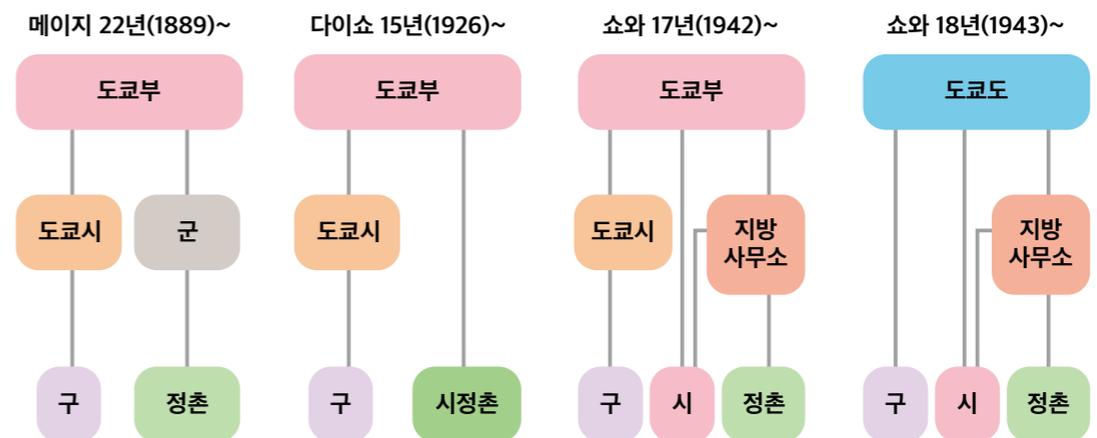
이번 도제의 주요한 점은 도쿄시 해소의 측면으로, 3다마 및 기타 지방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러나 3다마 지방이 장래에 발전해 인구 또는 교통 관계 등에 있어 상당히 실체가 변화할 경우에는 구제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제81회회 도제에 대한 질의응답 요지)

## 시정촌 위에 있던 지방사무소

정촌을 감독하던 군이 다이쇼 15년(1926)에 폐지되어 정촌은 직접 부의 감독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기관을 잃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론도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중일전쟁이 시작되고 총동원체제 강화가 요구되자 '중간 기관' 설치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쇼와 17년(1942), 지방사무소를 두게 되었습니다. 지방사무소는 군청과 달리 지사의 보조기관이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전결사항을 가지고 정촌에 군림하는 존재였습니다. 설치 1년 후에 도제가 실시되지만, 지방사무소는 계속 다마의 시정촌을 지도하는 기관으로 남아, 제2차 세계대전 후 도가 '지방공공단체'가 된 후에도 존속되었습니다<그림2>.

<그림 2> 도쿄 행정제도 구조의 변천



\* 다이쇼 6년(1917)에 하치오지, 쇼와 15년(1940)에 다치카와가 시제(市制)를 시행.

\* 메이지 32년(1899)부터 다이쇼 12년(1923)까지 군에는 군의회를 두고 있었다.

# 제 4 장 다마의 공도화와 전후 부흥

## 전쟁의 영향

뭐, 뭐야!?

시작합니다! 퀴즈 아유미짱!

와 ~! 또 나왔어 ~!

아자! 이번에는 지지 않을 거야!

그럼 첫 번째 문제!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주요 산업은 직물업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정답 ~!!

다치카와 비행장이 생기거나 주요선과 오메선 연선에 군수공장이 생기는 등 항공기 산업이 주요 산업이 되어 갔어

다치카와에 기지가 있었다는 건 들어본 적이 있어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본도 병력 강화에 힘쓰는 거지

하지만 군사시설 주변은 적의 공격을 받는 표적이 되지.

많은 생명과 시설들이 손실되었어

자, 두 번째 문제!

전쟁에서 지면서 다마에 있던 3개의 비행장은 미국의 기지가 돼. 그 3개는 다치카와 비행장과 조후 비행장, 그리고 하나는 어디일까요?

비행장 이름이라 ~

다마에 비행장 같은 게 있었나?

그 비행장에서는 전투기나 오스프리 등도 이착륙하고 있어

아니 ~! 가데나는 오키나와! 내가 대답하려고 했는데 끼어들지 마... 뭐더라? 요코?

그래! 요코타 비행장이야!

정답! 지금도 미군의 기지로 사용되고 있지.

비행장은 펜스로 둘러싸여 있어서 입장하려면 여권 같은 신분증이 필요해

이っほい!

月券った!!

むむむ

두 번째 대결을 마치고 1승 1패로 무승부가 된 야마토와 사쿠라. 다음은 드디어 마지막 회! 호화로운 하와이 여행 (아유미의 사비로 제공) 을 획득하는 것은 과연 어느 쪽!?

## 다치카와 비행장 개설과 군 관련 시설의 확대

### 다치카와 비행장 개설

다이쇼 11년(1922), 다치카와무라에 다치카와 비행장<사진1>이 개설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항공기가 실용화되어 종전 후 일본 육군도 항공 병력 증강에 나섭니다. 다치카와 비행장은 제도 도쿄 방위 거점의 핵심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전해에 기후현 가카미가하라에서 창설한 비행 제5대대가 다치카와로 이주해 다이쇼 14년(1925)에 비행 제5연대로 승격합니다. 또한 다치카와 비행장은 민간 공항으로도 공동 이용되어 쇼와 4년(1929)에는 다치카와-오사카 구간을 3시간 만에 연결하는 정기 항공로가 열렸습니다. 쇼와 8년(1933), 민간기가 도쿄 비행장(현재의 하네다 비행장)으로 이전한 후로는 육군 전용이 되었습니다. 하치오지가 직물업의 중심지인 '상도(桑都)'로 알려진 데 비해 다치카와는 '공도(空都)'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 사진 1 > 남측 상공에서 본 다치카와 비행장 (쇼와 시대 (1926~1989) 초기) (『사진집 다치카와』에서 발췌)

### 다치카와의 시제 시행

다치카와 비행장 개설 이듬해인 다이쇼 12년(1923)에 다치카와무라는 정제(町制)를 시행합니다. 당시 다마의 시와 정으로는 하치오지시와 7개 정이 있었습니다(후추·조후·다나시·히노·마치다·오메·이쓰카이치). 이곳들은 에도 시대(1603~1867) 이래의 가도를 잇는 역참이 발전해 온 곳입니다. 반면 다치카와의 정제 시행은 군사시설이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제1회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이쇼 9년(1920)에 4,633명이었던 다치카와무라는 군 관련 시설의 설치와 교통의 요충화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여 쇼와 15년(1940)에는 33,849명이 되었습니다(731% 증가). 그리고 같은 해, 다치카와마치는 시제(市制)를 시행합니다. 정제가 시행된 지 17년 만에 하치오지시에 이어 다마에서 두 번째 시가 탄생했습니다.

## 확대

### 군사시설과 군수공장의 진출

다치카와 비행장이 개설되자 주변에 육군항공기술연구소와 육군항공공장 등 항공기 관련 연구 개발·제조에 관한 군사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군용기를 제조하는 다치카와 비행기와 히타치 항공기, 쇼와 비행기공업 등 많은 군수공장도 진출해 왔습니다. 또한 무사시노·미타카에 나카지마 비행기, 요코가와 전기, 일본무선, 조후에 조후 비행장, 고가네이에 육군기술연구소, 고다이라에 육군경리학교, 후추에 육군 연료창<사진2>, 도쿄 시바우라 전기 등이 신설·이전해 왔습니다. 주요선 연선 주변에서 오메선 연선에 걸쳐 무사시노 대지에 군 관련 시설 지대가 형성되어 간 것입니다<그림1>.



< 사진 2 > 육군 연료창 (후추시 사진집 『그날의 후추』에서 발췌)  
후추의 육군 연료창은 쇼와 15년(1940)에 개설되어 항공 연료의 대체 기술 개발을 연구했다. 사진은 쇼와 21년(1946) 당시의 모습.



< 그림 1 > 주요 군사시설과 군수공장 (『다마 백년의 변천』에서 발췌)

# 쇼와 시대 전기의 산업과 행정

## 직물업에서 항공기 산업으로

메이지 시대(1868~1912) 이래 다마 지역의 주요 산업은 양잠·제사와 직물업이었습니다. 하치오지 직물(견직물), 오메 직물(견면 교직물), 무라야마 직물(곤가스리: 비백(飛白) 무늬가 있는 감색 옷감→오시마 명주) 등 3개의 산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쇼와 5년(1930)에 쇼와 공황이 일어나자 일본 경제는 불경기에 빠지고 다마의 직물업도 큰 타격을 입습니다. 쇼와 공황이 계기가 되어 다마의 산업 구성은 크게 바뀌었는데, 이후 공업 생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직물업의 비율이 급속히 저하되고 그 대신 항공기 관련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합니다. 군 관련 시설 지대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용 주택가가 각지에 건설되어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쇼와 공황을 계기로 주요 산업이었던 양잠과 직물업의 비율이 저하돼

## 쇼와 시대 전기의 정제 시행

학원도시의 개발과 맞물려, 군 관련 시설 지대의 마을들은 주택지화, 도시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도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시제(市制), 정제(町制) 시행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쇼와 8년(1933) 이후에는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어 합병에 의한 시제 및 정제가 각지에서 구상되었습니다. 쇼와 16년(1941)에는 하치오지시와 고미야마치가 합병합니다. 또한 쇼와 초년(1926)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13개 촌이 단독으로 정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치오지시에 인접한 아사카와·고미야, 오고우치 댐 건설에 의한 히카와, 조합촌을 해소한 미즈호 이외의 9개 촌(무사시노·고가네이·미타카·고쿠분지·호야·후사·쇼와·히가시무라야마·고다이라)은 군 관련 시설 지대 입지에 따른 정제 시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COLUMN

#### 고이케 기하치 정장(町長)의 일기

고이케 기하치는 히가시무라야마 촌립 가세이 심상고 등초등학교에서 31년간 교장을 맡았습니다. 퇴직 후 쇼와 17년(1942)부터 쇼와 21년(1946)까지 히가시무라야마 정장을 맡아 전시 체제하의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쇼와 19년(1944)의 일기가 복각되어 정장의 바쁜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농업 근로 동원, 도조 총리 등의 시찰, 학동 집단 소개(대피) 수용, 군수공장에 학도 근로 동원, 공습 경보 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고이케 기하치 일기』에서 발췌).



고이케 기하치  
(히가시무라야마 고향역사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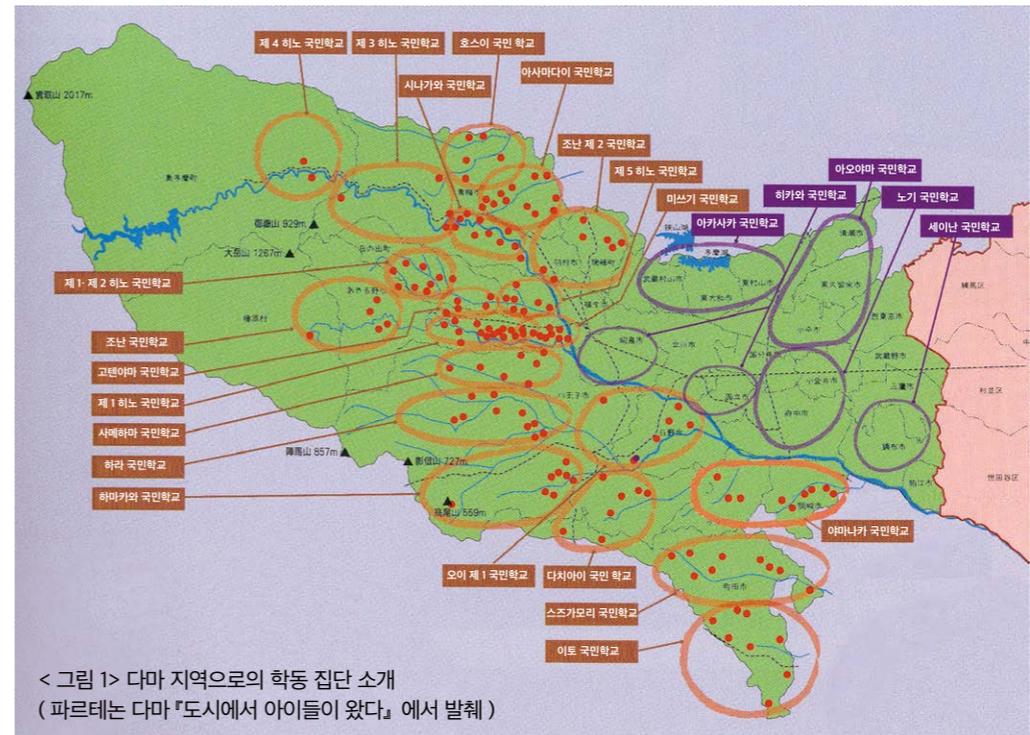
## 전시 체제하의 행정

쇼와 12년(1937) 중일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내는 점차 전시 체제를 강화해 나갑니다. 정부는 행정 쇄신을 요구하였고 시정촌의 행정 사무도 전시 체제에 대응했습니다. 병사들의 출정, 방공 연습, 물자 배급, 명령맞이, 도나리 구미(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국민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지역 조직)와 방공단 지도 등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은 주민들과 함께 '후방 수호'를 뒷받칩니다. 쇼와 16년(1941) 12월에 태평양 전쟁에 돌입하여 점차 전세가 악화되자 군 관련 시설 지대는 미군의 공습 대상이 되었습니다. 쇼와 19년(1944) 11월, 미군은 폭격기 B29<사진1>에 의한 본격적인 첫 본토 공습으로 나카지마 비행기 무사시 제작소(현 무사시노시)에 대해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종전까지 군수공장이나 군사시설을 목표로 한 공습, 하치오지에 대한 중소도시 공습, 비행기에 의한 공습 등을 받아 다수의 인명과 시설이 소실되었습니다.



< 사진 1 > 나카지마 비행기 무사시 제작소로 날아 온 B29(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소장)

또한 쇼와 19년(1944) 8월 이후 도쿄 구 지역 22만여 명의 학동이 간토, 도카이, 도호쿠 등 13현으로 소개(대피)했습니다. 다마 지역에는 구 아카사카구(현 미나토구의 일부)에서 기타타마군으로, 구 시나가와구(현 시나가와구의 일부)에서 미나미타마군과 니시타마군으로 학동·교원 총 9,000여 명이 소개했습니다<그림1>.



< 그림 1 > 다마 지역으로의 학동 집단 소개  
( 파르테는 다마 『도시에서 아이들이 왔다』 에서 발췌 )

# 미군 기지와 다마

## 미군의 진주와 접수

쇼와 20년(1945) 9월, 미군의 제11군단 제1기병사단이 요코하마에 상륙해 하라마치다를 지나 조후, 다치카와, 다마(요코타)의 각 비행장을 점거했습니다. 그 후 주력 부대가 도쿄로 진입해 요요기 연병장, 다이이치 호텔 등으로 분산 이주합니다. 미군의 진주는 다마 지역의 육군 비행장을 점거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군사시설은 접수되고 육군 연료창과 화공창 등에는 미군 기지와 시설이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야마모토 유조 저택(미타카시)와 스즈카 저택(고마에시) 등의 양옥은 접수되어 장교용 숙소로 개장되었습니다.



< 사진 1 > 미군 하우스 (요코타 기지 주변)

기지 주변에는 미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음식점과 호텔, 카바레가 들어선 환락가가 성립되어 그 흔적은 현재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 구니타치마치에서는 이러한 환락시설의 건설을 금지하기 위해 쇼와 27년(1952)에 문교 지구 지정을 받아 풍기 유지를 도모합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미군의 주둔은 장기화되어 나카지마 비행기 무사시 제작소 부지에는 무사시노 주택지구(그린파크)로서 장교의 가족용 숙소가 건설되었고 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쇼와 29년(1954)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또한 요코타 기지 주변의 농지에는 미군 하우스<사진1>가 건설되어 그 세대 수는 쇼와 32년(1957)에 약 1,100세대에 이르렀습니다.

### COLUMN

#### 반환된 군용지

다마 지역의 옛 군용지 중 대부분은 일본으로 반환된 후 단지·공원·공공시설 등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전쟁 전부터의 기능대로 비행장으로 재이용되고 있는 것이 조후 비행장입니다. 미군은 인분 거름을 사용하지 않는 청정 채소 공급을 위한 수경농장<사진2>과 간토무라(주택시설)로 사용했는데, 쇼와 31년(1956)에 반환되면서 도쿄도가 관리하는 장외 이착륙장이 되었습니다. 헤이세이 13년(2001)부터 정식 비행장이 되어 오시마-니이지마-고즈시마 등의 도서 지역과 본토를 잇는 도영 커뮤니티 공항으로서 도민의 이동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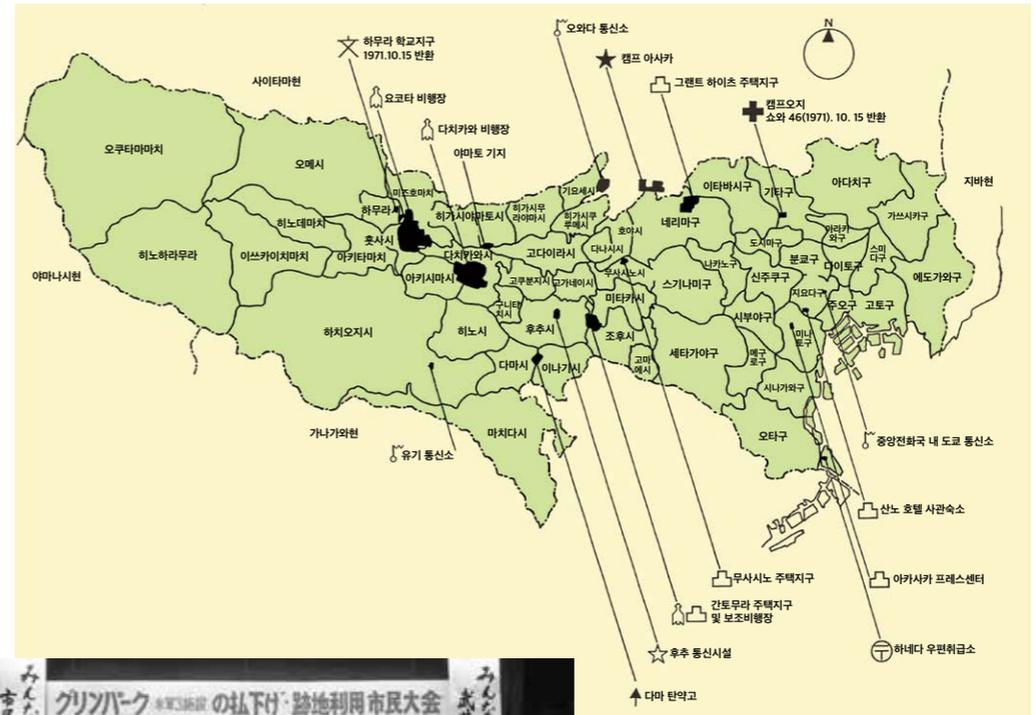


< 사진 2 > 조후 수경농장 (온실) (조후시 향토박물관 소장)

## 미군 기지의 반환

메이지 40년대까지 도내에는 많은 주일미군 시설이 있었습니다<그림1>. 현재도 요코타 비행장과 다마 탄약고(현 다마 서비스보조시설) 등이 주일미군에 공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반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군과 현지 사이에 다양한 대립이 생겨납니다. 다치카와 기지에서는 쇼와 30년(1955)에 활주로 연장 계획이 나오자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스나가와 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듬해에는 토지 측량대와 현지 주민, 지원 학생들 간에 충돌 사건(스나가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쇼와 44년(1969)부터 기지 기능의 요코타 이전이 진행되었고 쇼와 52년(1977) 일본 정부 전면 반환 후에는 국영 쇼와 기념공원, 자위대 및 관련 관청 시설을 포함한 광역 방재 기지, 시가지 재개발 지구, 다마 도시 모노레일 기지 등으로 구성된 철거지 개발 사업이 진행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전술한 그린파크의 경우 메이지 40년대부터 시민에 의한 미군 숙소 반환 운동이 시작되어 쇼와 46년(1971)에 반환이 결정되었습니다<사진3>. 쇼와 49년(1974)에 공원화 서명 운동이 일어나 헤이세이 원년(1989)에 도입 무사시노 중앙공원이 개원합니다.



< 그림 1 > 메이지 40년대 중반경 도내 미군 기지 일람 (『다치카와 기지』에서 발췌)



< 사진 3 > 그린파크 매각·철거지 이용 시민대회 (쇼와 46년(1971))(무사시노시 제공)

# 제 5 장 고도 경제 성장과 다마 행정의 변화

## 다마의 주거 환경 변화

전쟁이 끝나면 일본은 고도 경제 성장기에 들어가지?  
응, 전국에서 도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래서 교외에 집을 많이 짓게 돼  
맞아! 도쿄 주위를 그린벨트와 위성도시로 나누어 개발한 거야

강압적이네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았어?

물론 반대 운동이 일어났지  
그린벨트 반대 운동이라고 해

우리 지역 일이니까 우리 의견을 들어줘!

반대 운동도 있고 해서 그린 벨트 계획은 없어지고, 마을과 자연을 지키면서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바뀌었지

단지 하면 다마 뉴타운 이라고 자주 듣는데  
그렇지. 쇼와 46년(1971)에 다마에서 입주가 시작된 커다란 단지야

당시에는 엄청 붐볐을 것 같아  
하지만 생긴 당시에는 아직 전철이 다니지 않아서 불편했지

그래서 다마 뉴타운은... 아... 유, 육지의, 고...

아유미짱 ~!!  
뜻밖에도 아유미짱에게 문제 발생! 고장 때문에 로봇인 걸 들켜 버렸다! 과연 야마토와 사쿠라는 아유미짱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유미짱의 운명은!? 다음 주! '기적은 급식 시간에 일어난다' Don't miss it!

# 쇼와의 대합병과 다마

## 정촌 합병 촉진법의 제정

쇼와 28년(1953), 정촌 합병 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시정촌 자치 확립을 내세운 사우프 권고를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정촌의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해 인구 8,000명 이하의 작은 정촌을 합병을 통해 해소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쿄도에서도 법 제정에 따라 도쿄도 정촌 합병 촉진 심의회를 설치, 정촌 합병의 지도에 나섰습니다.

## 전쟁 전부터 있었던 합병의 움직임

다마 지역에서의 합병 움직임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하치오지시가 공업지 확보를 위해 쇼와 16년(1941)에 고미야마치를 합병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쇼와 10년대에는 주로 도시계획 구역을 기준으로 한 합병 움직임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시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다마 지역의 쇼와의 대합병에는 작은 정촌의 해소를 목표로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도시화를 목표로 한, 전쟁 전에 시작된 흐름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정촌 합병 촉진법에 근거하지 않는 자주적인 합병의 움직임이 법 제정 전부터 있었으며 법의 제정이 새로운 합병을 '촉진'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표1>.

< 표 1 > '쇼와의 대합병' 시기의 시정촌 합병

정촌 합병 촉진법 시행기	쇼와 26년(1951) 4월 1일	오메시 (오메마치, 가스미무라, 조후무라) ◆
	쇼와 28년(1953) 10월 1일	정촌 합병 촉진법 시행
	쇼와 29년(1954) 4월 1일	후추시 (후추마치, 다마무라, 니시후무라) ◆ 마치다마치 (마치다마치, 미나미무라) ◆
	5월 1일	아키시마시 (쇼와마치, 하이지마무라) ◆
	쇼와 30년(1955) 4월 1일	조후시 (조후마치, 진다이마치) 하치오지시 (하치오지시, 요코야마무라, 모토하치오지무라, 온가타무라, 가와구치무, 가스미무라, 유기무라) 오메시 (오메시, 오시노무라, 오소키무라, 미타무라, 나리키무라) 이쓰카이치마치 (이쓰카이치마치, 고미야무라, 도쿠라무라, 마스코무라) 아키타마치 (다사이무라, 니시아키루무라, 히가시아키루무라) 오쿠타마치 (히카와마치, 고리무라, 오고우치무라)
	6월 1일	히노데무라 (히라이무라, 오구노무라)
	쇼와 31년(1956) 6월 30일	신 시정촌 건설 촉진법 시행
	9월 30일	정촌 합병 촉진법 실효
	쇼와 33년(1958) 2월 1일	히노마치 (히노마치, 나나오무라) 마치다시 (마치다마치, 쓰루카와무라, 다다오무라, 사카이무라)
	10월 15일	미즈호마치 (미즈호마치, 사이타마현 모토사야마무라의 일부)
고도경제 성장기	쇼와 34년(1959) 4월 1일	하치오지시 (하치오지시, 아사카와마치)
	쇼와 36년(1961) 6월 29일	신 시정촌 건설 촉진법 실효
	쇼와 38년(1963) 5월 1일	다치카와시 (다치카와시, 스나가와마치)
	쇼와 39년(1964) 4월 1일	하치오지시 (하치오지시, 유기무라)

\* 파란색 글자는 합병 시제(市制) 시행 \* ◆은 정촌합병촉진법에 근거하지 않는 자주적 합병(『다마 광역행정사』에서 발췌)

## 합병 시제 시행을 목표로 한 기타타마

기타타마의 경우 후추, 아키시마, 조후에서 중규모 합병이 실현되었습니다. 이는 시제 시행을 수반한 합병으로, 다른 기타타마 지역에서도 합병 시제를 목표로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다치카와, 무사시노에서는 대규모 합병 구상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3개 시(후추, 아키시마, 조후) 이외의 합병은 이루지 못했고 그 후에는 원래 구역 그대로 시제를 시행했습니다. 다양한 조합의 합병안이 제시되어 어디가 새로운 시의 중심이 될 것인가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것이 합병이 실현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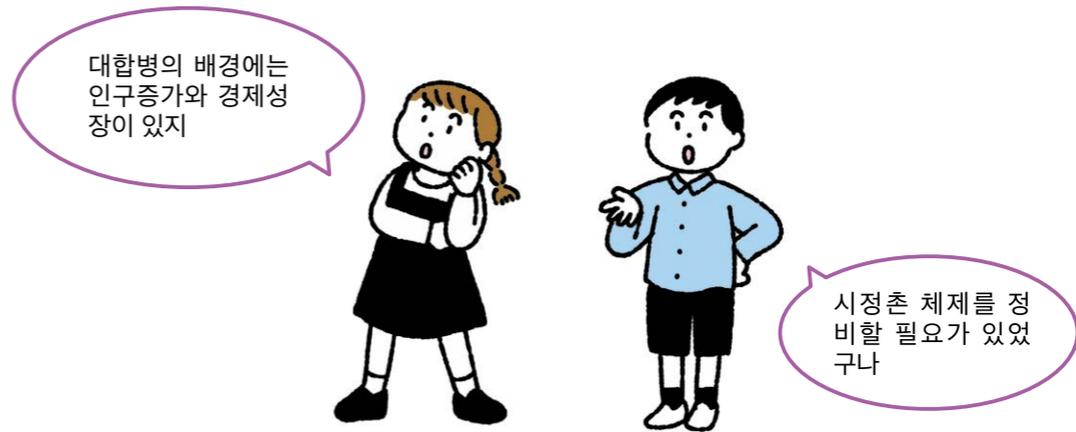
## 미나미타마 · 니시타마 대합병의 실현

오메, 하치오지, 마치다에서는 대규모 합병이 실현되었습니다. 이 3개 시는 중심지가 분명해서 정리하기 쉽다는 이유 외에, 당시 진행되고 있던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 위성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구상이 있었던 것도 합병 실현의 배경에 있었습니다.

### COLUMN

#### 일부사무조합(특별지방공공단체)의 증가

인구 증가가 진행되자 쓰레기·시뇨 처리라는 위생 문제에 대한 대응이 큰 과제가 됩니다. 시정촌 합병에는 이러한 문제에 광역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타타마는 인구 증가가 가장 격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병이 아니라 연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됩니다. 시정촌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일부사무조합의 설립입니다. 쇼와의 대합병 시기부터 무사시노 미타카 지구 보건위생조합, 니마이바시 위생조합(후추, 조후, 고가네이), 다치카와·아키시마 위생처리조합, 북부 산카초 위생조합(다나시, 호야, 구루메) 등의 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 그린벨트 반대 투쟁과 다마 뉴타운 건설

## 수도권 정비계획과 다마

쇼와 8년(1933) 도시계획법 개정 무렵부터 도시계획의 개념은 대도시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해당 개념은 쇼와 31년(1956)에 제정된 수도권정비법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기성 시가지'(대도시 지역)를 억제하기 위해 그 주위를 '근교지대'(그린벨트)로 만들고 그 바깥 쪽에 '시가지 개발구역'(위성도시)을 조성해 인구의 분산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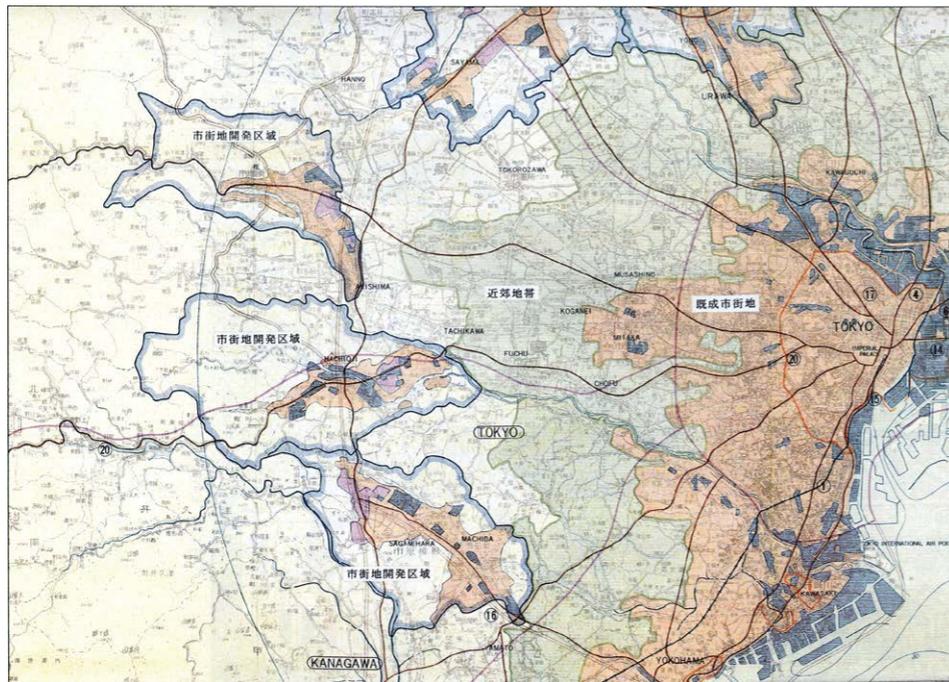
## 그린벨트 반대 투쟁

수도권 정비계획에서는 기타타마의 2개 시와 13개 정, 미나미타마의 이나기무라가 '근교지대'로 지정되었습니다<그림1>. 이들 시정촌은 도쿄도 근교지대 설정 반대 기성동맹을 결성해 그린벨트 반대 투쟁에 나섭니다<그림2>. 당시 합병 시제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화를 추진하던 시정촌에게 녹지를 중시하고 주택지화, 상공업지화 억제를 도모하는 그린벨트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강력한 반대 운동의 결과, 수도권정비법은 쇼와 40년(1965)에 개정되어 '근교지대'는 없어졌으며 계획적으로 시가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녹지를 보전하는 지역으로 '근교정비지대'가 규정되었습니다.



< 그림 2 > 그린벨트 반대 전단지 (『다마의 변천』 100 호에서 발췌)

< 그림 1 > 수도권 정비계획도 (『다마 도시계획사』에서 발췌)



## 공장·단지의 유치

그린벨트 반대 투쟁 속에서 도시화의 기정사실화를 추진하고자 공단 유치, 공장 유치가 적극 진행되었습니다. 쇼와 33년(1958), 반대 기성동맹에서는 일본주택공단과 간담을 실시하여 단지 건설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 결과 히바리가오카 단지, 히가시쿠루메 단지 등 대규모 단지가 '근교지대' 내에 건설되었습니다<표1>. 또한 간담이 이루어진 쇼와 33년(1958)에는 후추에서, 이듬해에는 조후에서 공장 유치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시가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하치오지·히노 지구, 오메·하무라·훗사 지구, 사가미하라·마치다 지구에서도 공장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마 지역은 주택지, 공업지로서 이 시기에 크게 변모한 것입니다.

< 표 1 > 쇼와 30 년대에 건설된 공단 단지

입주	단지명	지자체
쇼와 32 년 (1957)	미도리초 단지	무사시노
쇼와 33 년 (1958)	구메가와 단지	히가시무라야마
	다마다이라 단지	히노
	야기사와 단지	호야
	히가시후시미 단지	호야
쇼와 34 년 (1959)	사쿠라즈쓰미 단지	무사시노
	히바리가오카 단지	히가시쿠루메
	신카와 단지	미타카
쇼와 35 년 (1960)	후추 단지	후추
쇼와 37 년 (1962)	미타카다이 단지	미타카
	히가시쿠루메 단지	히가시쿠루메

\* 500세대 이상의 단지 \* 색깔 글자는 근교지대 내 단지

## 다마 뉴타운 건설

기타타마의 주택지 개발이 일단락되자 미나미타마의 구릉지에 개발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것은 스프롤 현상이라고 하는, 민간 자본에 의한 무질서한 개발이었습니다. 이에 심각해지는 주택 부족을 해결하고 질서정연한 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지 개발 계획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마 뉴타운 구상입니다. 쇼와 40년(1965)에 사업 결정이 이루어져 쇼와 46년(1971)부터 스와·나가야마 지구에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사진1>. 그러나 입주 시에는 아직 게이오 사가미하라선, 오다큐 다마선이 개통되지 않아 도심으로 통근하려면 버스로 세이세키사쿠라가오카까지 가야 했습니다<사진2>. 이 때문에 뉴타운은 '육지의 고도'로 불렸습니다.



< 사진 1 > 1차 입주자들 (『다마 뉴타운 개발의 궤적』에서 발췌)(다마시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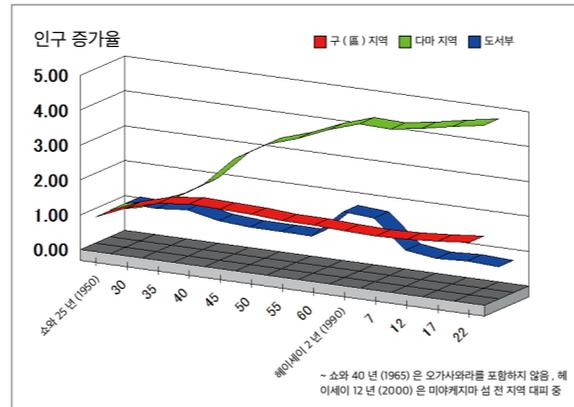
< 사진 2 > 통근 시의 스와미나미 공원 버스 정류장 (『다마 뉴타운 개발의 궤적』에서 발췌)(게이오전철 소장)

# '3 다마 격차' 와 그 해소

## '3 다마 격차' 의 부상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대부분이 농촌 지대였던 다마 지역과 도시 지역이었던 도쿄 시역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시 중에는 군수공장으로서의 노동력 유입, 종전 후에는 도시화에 수반되는 인구 유입으로 인해 다마 지역은 인구가 급속히 증가합니다<그림1>. 한편, 다양한 인프라 준비가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도쿄 도심부에 비해 살기 어려운 '3다마 격차'가 쇼와 40년대부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림1> 전후의 지구별 인구 증가율(각 연도 '인구조사'를 참조하여 작성)

## '3 다마 격차' 의 실태와 배경

그렇다면 '3다마 격차'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표1>은 쇼와 50년(1975) 도시정촌 협의회(도와 시정촌의 협의기관으로 쇼와 39년(1964)에 설치)에서 설정한 '3다마 격차 8개 과제'입니다. 여기에서는 격차 해소를 위한 방향성이 제시됩니다. 이러한 '격차'의 배경에 급격한 인구 증가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행정 기능의 변혁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다이쇼 12년(1923)에 군의회가, 다이쇼 15년(1926)에는 군청이 폐지되어 군역을 포괄하는 광역 행정 기능은 상실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쇼와 18년(1943)에 도쿄도제가 시행되면서 당시까지의 도쿄부와 도쿄시가 폐지되고 새롭게 도쿄도가 성립된 것은 '격차'를 낳는 배경 중 하나가 됩니다. 즉, 도쿄도의 행정 기구는 구 도쿄시의 체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도의 다마 지역에 대한 행정이 소홀해지고 말았다는 측면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만약 도쿄부·도쿄시가 존속되었다면 부로서 도쿄 시역 이외의 행정도 제대로 살펴 '격차'가 생겨날 여지도 적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도쿄도제(도·구 제도)의 성립이 다마 지역을 주변부로 밀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부가 된 다마 지역에 종속성을 더한 것이 지방사무소의 존재입니다(제3장 '도제의 성립과 다마의 시정촌' 참조).

지방사무소는 다마를 지도하는 존재로 '다이칸쇼(지방관아)', '3다마 단다이(지방 장관)' 등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 표 1 > 3 다마 격차 8 개 과제

1. 의무교육시설(체육관 보유율)
2. 공공하수도의 인구보급률
3.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
4. 보건소 1개소당 인구
5. 도로의 평균 폭
6. 도서관 1개소당 인구
7. 1인당 연간 국민건강보험료
8. 1인당 월 보육료

## '3 다마 격차' 의 해소

'3다마 격차' 해소를 위한 움직임은 이미 쇼와 40년대 초부터 있었습니다. 도쿄도 수도사업조사 전문위원 설치(쇼와 42년(1967)), 도시정촌 협의회에서의 '시정촌 공공시설 등 정비계획 책정 요강' 결정(쇼와 45년(1970)), 도지사를 의장으로 하는 3다마 진흥대책회의 발족(쇼와 45년(1970)), 도 총무국 3다마 도서 대책실 설치(쇼와 46년(1971)), 3다마 격차 조사위원회 발족(쇼와 48년(1973)) 등입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쇼와 50년(1975)의 도시정촌 협의회에서 8개 과제가 격차 과제로 확인되었고 그 후 중점 과제로 삼아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이 추진되어 갑니다.

이 8개 과제 외에도 '3다마 격차'는 다방면에 걸쳐 존재했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상수도 사업입니다. 다마 지역에서는 원래 시정촌마다 주로 우물물에 의해 급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에 의한 급수량의 증가는 우물물의 고갈을 초래했고, 부족한 수돗물은 도쿄도로부터의 임시 분수(分水)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비싼 수도 요금과 구 지역에는 없는 갖가지 유상 서비스를 부담해야 했습니다<표2>.

격차 해소가 큰 과제로 등장한 가운데 도지사는 도쿄도 수도사업조사 전문위원회 '구 지역과 다마 지구 수도사업의 격차 시정조치'에 대해 자문합니다. 그리고 쇼와 46년(1971), '도쿄도는 3다마 지구 시정촌영 수도사업을 흡수합병하고, 구 지역 수도사업과 함께 일원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수도사업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언에 따라 상수도사업의 일원화가 추진되었습니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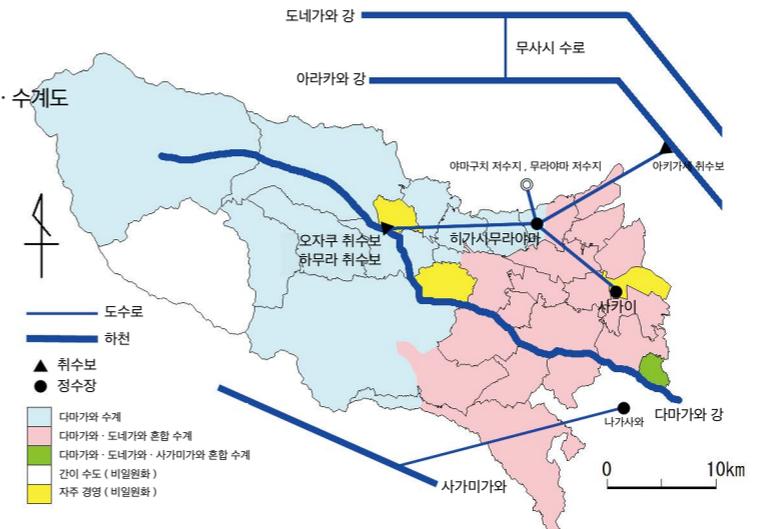
사업체	요금 (엔)	비고	사업체	요금 (엔)	비고	사업체	요금 (엔)	비고
도쿄 구 지역	140		고가네이시	240	◎	미즈호마치	370	◎●
하치오지시	360	◎	고다이라시	270	◎	하무라마치	320	◎●
다치카와시	230	◎	히노시	272	◎●	아키타마치	350	◎●
무사시노시	210	◎	히가시무라야마시	270	◎●	이쓰카이치마치	250	◎
미타카시	250	◎	고쿠분지시	290	◎	다마시	285	◎
오메시	275	◎	구니타치시	266	◎●	이나기시	360	◎
후추시	205	◎	다나시시	280	◎	무사시무라야마시	250	◎
아키시마시	210	◎	호야시	325	◎	히가시야마토시	275	◎●
조후시	260	◎	훗사시	330	◎●	기요세시	230	◎●
마치다시	300	◎	고마에시	280	◎	히가시쿠루메시	260	◎●

<표2>

가정용 10톤당 수도 요금 (쇼와 46년(1971) 당시)

◎패킹 교환 요금  
●신규 설치자 부담금 (『다마의 변천』 100 호에서 발췌)

< 그림 2 > 다마 지역의 상수도 · 수계도





# 간토 대지진과 다마 지역의 피해

## 지진 발생 시의 개황

도쿄 시내에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고 연안부에 비교적 가까운 마치다 < 사진 3>< 사진 4> 와 하치오지 < 사진 1>< 사진 2>< 사진 5> 도 피해가 있었으나 지반이 단단한 간토 산지나 무사시노 대지에 위치하는 다마 지역의 대부분은 다행히도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 사진 1> 무너진 골목의 집 (하치오지시 요코야마초) (개인 소장, 하치오지시 향토자료관 제공)



< 사진 2> 대피하는 사람들 (하치오지시 혼초) (개인 소장, 하치오지시 향토자료관 제공)

## 다마 지역의 피해와 주민들의 구조활동

마치다에서는 당시의 사카이무라를 중심으로 지진에 의한 산사태, 절벽 붕괴 등으로 인해 사망자 16명, 주택 전파 349호, 반파 708호의 피해를, 또한 하치오지에서도 당시의 온가타무라를 중심으로 산사태 등으로 인해 사망자 10명, 주택 전파 9호, 반파 39호의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다에서는 지진 다음날부터 6일간은 요코하마 방면에서 가나가와 가도와 요코하마선을 따라, 도쿄 방면에서 쓰루카와 가도를 따라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대피자들이 통과했습니다. 주변 마을에서는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촌 사무소 직원이나 재향군인, 청년단이 협력하여 대피소 설치나 식량 배급 등 통과자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구제를 실시하여 감사를 받았습니다.



< 사진 3> 간토 대지진 시 무너진 미나미바시 다리 (마치다시 가나모리) [촬영: 故 쓰쓰미 도시히코]



< 사진 4> 지진 발생 시 많은 사람들이 경내로 도망쳐 무사했음을 나타내는 설명판 (마치다시 오쿠라마치 '가스가 신사')

다마의 경우 당시 다마무라에 대한 기록으로 '대지진이 발생한 날은 소나기와 같은 간헐적인 비가 아침 10시경까지 내리더니 남풍과 함께 햇벌이 내리쬐는 이상한 날씨였다. 그 후에도 수일에 걸쳐 여진이 계속되는 바람에 마을에서는 전파된 가옥, 창고 외에 도로와 다리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주민 사상자는 없었다. 마을은 즉각 피해 상황을 정리하고 이재민 구호, 교통이 두절된 도로와 다리 수선에 대응하고 있다' 등과 같은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간토 대지진 이후 다마 지역에는 도심에서 많은 이재민들이 이주해 오게 되어 무사시노 대지에 위치한 기치조지와 미타카, 구니타치 등은 근교 농촌에서 근교 도시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 COLUMN

#### 간토 대지진으로부터 100년

다마 지역에서는 목조 밀집 주택의 해소가 도모됨과 동시에 지역에서 서로 돕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현재 2,287개의 방재 시민조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레이와 5년(2023)은 간토 대지진으로부터 100년이라는 중요한 해이므로 도쿄도를 시작으로 각지에서 지진 재해를 되돌아보는 이벤트와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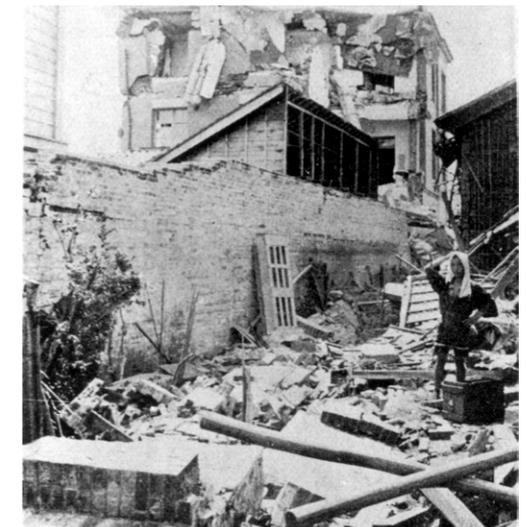


재해 시의 리더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헤이세이 30년도(2018)부터 도쿄도가 실시하고 있는 '방재 코디네이터 연수' 모습

#### 간토 대지진

다이쇼 12년(1923) 9월 1일 11시 58분, 가나가와현 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매그니튜드 7.9의 지진이 발생해 가나가와현 및 도쿄부를 중심으로, 인접한 이바라키현·지바현에서 시즈오카현 동부까지의 내륙과 연안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서 추정 10만 5천 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쿄와 요코하마에서는 목조 주택이 밀집해 있던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화재가 일어나 도쿄의 상업 지역 일대부터 고지대 주택 지구에 걸쳐 시가지의 3분의 1이 소실되었습니다. 정오 전에 점심 준비를 위해 화덕이나 풍로에 불을 피운 가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 사진 5> 파괴된 하치오지 직물동업조합 (하치오지시 향토자료관 제공)

# 도호쿠 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 ( 동일본

# 대지진 ) 과 피해 지자체에 대한 지원 활동

## 지진 발생에 따른 다마 지역의 피해 상황

헤이세이 23년(2011) 3월 11일 지진 발생 직후에는 역 입장을 제한하는 철도도 있어 주요 역 주변은 사람들이 넘쳐났으며 간선도로에서도 도보로 귀가하는 사람들이 있어 심야까지 큰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도보 귀가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슈 가도, 오메 가도, 신오메 가도 등의 간선도로에서는 연선의 편의점, 주유소, 도립학교 등의 재해 시 귀가 지원 스테이션을 통해 도보 귀가자에 대한 피해 정보 제공이나 물 제공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시정촌의 행정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에서도 같은 지원 활동을 펼쳤습니다<사진1>.

또한 태평양 쪽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등의 막대한 시설 피해로 인해 상당한 전력 공급 부족이 발생했기 때문에 도쿄 전력 주식회사에서는 3월 15일부터 28일에 걸쳐 수도권에서의 계획 정전을 실시했습니다. 다마 지역에서도 5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몇 시간 동안 정전이 계속되었습니다<사진2>.



< 사진 1 > 대피소 모습 (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



< 사진 2 > 계획 정전 시의 다마시 ( 다마시 제1원자력 발전소 )

## 후쿠시마현 등으로부터의 대피자 수용 · 지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재해에 따라 도쿄도에서는 대피한 후쿠시마현민의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도내 대피소로 지정된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는 주로 자가용으로 대피한 사람들을 수용했고 도쿄도가 조후시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지원을 받아 대피소를 1개월 이상 운영했습니다.

그 후 대피 생활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영주택, 시영주택 등에서의 수용이 결정되었으며 후쿠시마현 등의 대피자가 거주하는 시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시민과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진 발생으로부터 12년이 지난 지금도 다마 지역에는 1,200명이 넘는 대피자가 생활하고 있습니다<표1>.

< 표 1 > 도내 대피자 수 (도쿄도 공표: 레이와 5년(2023) 8월 1일 시점)

구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기타	총수
특별구	62	218	1,316	43	1,639
다마	45	153	979	31	1,208
합계	107	371	2,295	74	2,847

## 피해 지자체로의 직원 파견

다마 지역 지자체에 대한 직원 파견 요청의 경우 창구를 도쿄도 시장회로 일원화하고 헤이세이 23년(2011) 4월 18일부터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 이와테현을 시장회 사무국 직원이 방문하여 피해 지자체 등과 조정 후 다마 26개 시의 공동 지원이 오쓰치초 및 가마이시에서 시작되었습니다<사진3><사진4>.

이후 도쿄도를 통해 파견 요청이 있었던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초, 센다이시, 미야기현 교육청, 후쿠시마현 나미에마치, 그리고 아키히마시를 통한 요청에 의해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도 직원을 파견하는 등 약 1년 후인 헤이세이 24년(2012) 3월 말 시점에 33개 지자체에 1,062명의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 사진 3 > 도쿄 자치회관에서 야간에 현지로 향하는 버스 (『동일본 대지진에 관한 도쿄도 시장회의 대응 기록』에서 발췌)



< 사진 4 > 피해 지역에서의 구호물자 수용, 구분 작업 모습 (도쿄도 시정촌 직원 연수소『고다마 제 102 호』에서 발췌)

## 미야기현 재해 폐기물 수용 처리

헤이세이 23년(2011) 11월에 미야기현, 오나가와초, 도쿄도, 특별구장회 및 도쿄도 시장회와 '미야기현 오나가와초의 재해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 합의'를 맺고 오나가와초에서 대량으로 발생한 재해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용 시에는 청소공장을 소유한 시와 일부 사무조합(38페이지 참조)이 피해 지역 등을 방문해 반출할 폐기물이 있는 장소와 수용 가능한 폐기물의 형상·성질 및 상태, 석면 등 유해물·위험물 분별 상황, 방사능 대책 등을 확인하고 현지 주민 등에게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도쿄도 지자체에서는 오나가와초의 재해 폐기물 31,428톤을 수용하여 처리했습니다.

### 지진 발생 시의 도쿄도

헤이세이 23년(2011) 3월 11일 14시 46분, 진원 영역이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이바라키현 앞바다까지 남북 500km에 이르는, 매그니튜드 9.0이라는 일본 주변 관측 사상 최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도쿄도에서도 최대 진도 5강(다마 지역에서는 최대 진도 5약)의 흔들림이 발생해 입체주차장 일부 붕괴와 천장 낙하 등으로 8명이 숨지고 1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수도권의 철도는 안전 확인을 위해 전면적으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내각부가 발표한 추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귀가 곤란자는 51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책

## 도쿄도와 시구정촌의 대처

레이와 2년(2020) 3월, 도쿄도는 도쿄올림픽을 1년 정도 연기할 것을 결정함(57페이지 참조)과 동시에 주말의 외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보건소를 중심으로 감염자 상황 파악, 감염자 등으로부터의 의료 상담, 중등증 이상 감염자의 병원 수용 조정, 감염자 숙박 요양 시설 확보·운영 등을 진행함과 동시에 시구정촌과 연계해 5회에 이르는 백신 접종 장소 운영과 음식·오락 점포에 대한 시간 단축 철저 등을 목적으로 한 순찰, 그 외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감염 방지 협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추진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실시했습니다.

다마 지역의 각 시정촌에서도 백신 접종 체제 정비와 국가 긴급 경제 대책으로서의 '특별 정액 급부금' 등 급부에 따른 체제를 확보함 < 사진 1 > 과 동시에 비상사태 선언이나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등이 발표될 때마다 공공시설 사용 제한이나 이벤트 개최 제한 등의 대응에 쫓겼습니다.

중핵시로서 보건소가 있는 하치오지시에서는 코로나 19에 관한 전화 상담과 검체 운반, 귀국자·접촉자 전화 상담 센터 대응 등의 체제를 확립하고 의료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시내 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제 정비, 경증자 등의 수용 시설 확보 등에 힘썼습니다.

미증유의 팬데믹에 직면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편, 각 시정촌이 지혜를 짜내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감염증에 대한 마음가짐과 대응 노후가 축적되었습니다.



< 사진 1 > 급부금에 관한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대응하고 있는 모습 (다마시 제공)

코로나 감염으로 많은 도민이 사망한 가운데 히가시무라야마시 명예시민인 코미디언 '시무라 켄' 씨도 감염되어 레이와 2년(2020) 3월 29일에 사망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국내외의 많은 분들의 지원으로 레이와 3년(2021) 6월, 세이부 철도 '히가시무라야마역' 동쪽 출구에 '아임' 포즈를 취한 동상이 설치되었습니다. 시무라 씨의 공적은 오늘날 오가는 사람들에게 미소와 활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2 >.



< 사진 2 > 히가시무라야마역 앞에 있는 시무라 켄 씨의 동상

## 국가 차원의 대처

국가는 레이와 3년(2021) 2월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를, 검사 및 치료 비용은 공비 부담이 되는 감염증법상의 '2류 상당'으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입원 권고, 취업 제한, 외출 자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전액 공비로 전 국민(기저질환을 가진 사람 등 일부를 제외)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절성 독감과 동등한 '5류'로 낮춘 것은 레이와 5년(2023) 5월 8일의 일입니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입국 및 도항 제한, 입국 시 검사 등 국경 방역 대책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대규모 이벤트의 자제나 전국 학교에 임시 휴교를 요청하고 감염이 확산된 도부현에 대해 비상사태 선언 또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도쿄도에 대해서도 4회의 비상사태 선언과 3회의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발표했습니다 < 표 1 >.

제1기(제1파)	레이와 2년(2020) 1월 ~ 4월 5월 6월	정부의 비상사태 선언	4월 7일~5월 25일
제2기(제2파)	11월 12월		
제3기(제3파) <th>레이와 3년(2021) 1월 2월 3월</th> <th>정부의 비상사태 선언</th> <th>1월 7일~3월 21일</th>	레이와 3년(2021) 1월 2월 3월	정부의 비상사태 선언	1월 7일~3월 21일
제4기(제4-5파)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4월 12일~4월 24일
		정부의 비상사태 선언	4월 25일~6월 20일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6월 21일~7월 11일
		정부의 비상사태 선언	7월 12일~9월 30일
제5기(제6파)	레이와 4년(2022) 1월 2월 3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1월 21일~3월 21일
제6기(제7파)	6월		

< 표 1 > 레이와 4년(20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책과 관련된 도쿄도의 대처'에서 발췌

## 발생 경위와 도내 감염자 수

레이와 원년(2019)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 시에서의 원인 불명의 폐렴환자 확인에서 시작되어 레이와 2년(2020) 1월 16일에는 국내 최초 감염자가 확인됩니다. 이어 2월에는 국내 첫 사망자가 확인됨과 동시에 감염 경로 불명의 사례가 잇따라, 미증유의 감염증이 일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후 수습될 때까지 약 3년간, 제1파에서 제8파까지 감염 확산을 반복하여 도

접종 구분	접종 수 (명)	접종률 (%)
1회차	10,823,439	78.5
2회차	10,748,040	77.9
3회차	9,330,407	67.6
오미크론주 대응 백신	5,819,999	42.2

도쿄도가 최종 공표한 레이와 5년(2023) 5월 8일 시점의 도내 감염자(양성자)는 누계 438만 8,360명, 사망자는 누계 8,126명에 이르렀습니다.

# 제 7 장 문화 · 스포츠의 제전

## 열기는 최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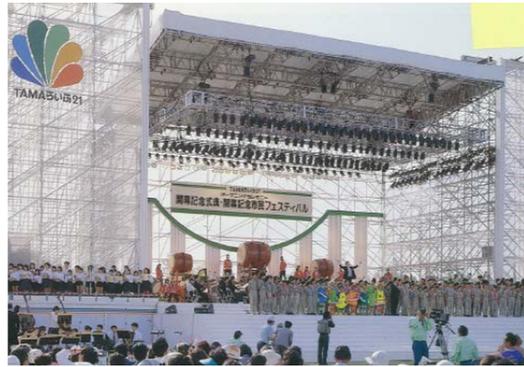
# 다마 도쿄 이관 100주년 기념사업

## TAMA 라이프 21' 개최 경위

헤이세이 5년(1993), 다마 도쿄 이관 100주년 기념 사업 'TAMA 라이프 21'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다마 신시대 창조'를 주제로, 다마 지역의 시정촌과 도쿄도가 연계하고 다마 지역의 주민, 기업, 대학, 행정 등 광범위한 사람들과 단체의 참여를 얻어 새로운 100년을 전망한 도시 정비 운동입니다. 'TAMA 라이프 21'에서는 같은 해 4월부터 11월까지 반년 동안 리사이클형 도시 형성, 도시형 근교 농업, 다마가와 강 보전 등 다마 각지에서 369개 사업·736개 행사, 총 665만 명이 참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습니다 < 사진 1> < 사진 2>. 많은 제언이 정리되었고 주민의 자주적인 네트워크가 많이 탄생했습니다.



< 사진 1> 잡목림을 행사장으로 삼은 이벤트도 개최되었다.



< 사진 2> 메인 행사장인 국영 쇼와 기념공원에서는 7월부터 11월까지 100일간, '다마 21 생활의 제전 VOICE93'이 개최되었다.

(『TAMA 라이프 21 백서 사진집』에서 발췌)

## 다마 교류센터 발족

'TAMA 라이프 21' 개최를 계기로 시민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지속성이 지적되기 시작했습니다. 'TAMA 라이프 21'의 사업 전개를 주시하고 있던 도쿄도 의회에서도 사업을 통해 형성된 자주적인 시민 네트워크와 정보센터 창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 결과, 도쿄도와 다마 지역 시정촌의 지원을 받아 'TAMA 라이프 21'의 성과 계승 등을 목적으로 헤이세이 6(1994)년 7월, (재단법인) 도쿄 시정촌자치조사회의의 한 조직으로서 '다마 교류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다마 교류센터'는 다마 지역의 시민 교류활동과 광역적 시민 네트워크 활동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다마 교류센터 사업》

1. 광역적 시민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교류의 장 제공과 조성(助成)에 관한 것
2. TAMA 라이프 21의 기록 공개 및 자료에 관한 정보 수집, 제공에 관한 것
3. TAMA 라이프 21의 성과를 포함한 기념사업 및 교류사업에 관한 것

# TAMA 라이프 21

## 다마 역사 강좌 (공익재단법인 다마신 지역문화재단과 공동 개최)

헤이세이 9년(1997)부터 역사와 문화의 보고인 다마 지역의 매력을 지역 내외에 주지시키기 위해 '다마 역사 강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5회 연속으로 개최되며 주제는 다이칸(지방관), 사원, 고쿠후(지방행정부), 성터, 일기, 지지(地誌), 철도, 다마가와 상수 등 다방면에 걸쳐 있는데, 모두 다마의 역사를 알기 위한 단서가 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강의 < 사진 3> 뿐만 아니라 현지를 방문하여 이해를 높이는 스타일 < 사진 4>을 채택하여 매년 많은 분들로부터 주목받는 '다마 교류센터'의 강좌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 사진 3> 제 20회 '다마의 명주(名主)들' 강의 모습 (헤이세이 28년(2016) 10월 21일)



< 사진 4> 제 13회 '이노 다다타카 측량대의 길을 걷다' 현지 견학회 모습 (다카하타 부동산 경내, 헤이세이 21년(2009) 11월 6일)

### COLUMN

## 다마 도쿄 이관 120주년 기념사업

헤이세이 25년(2013)에는 이관 120주년을 기념하여 도쿄도가 주최하는 '다마 페스티벌'과 '여름방학 보물찾기 챌린지', '자연체험 프로그램', '포토 콘테스트'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도쿄 시정촌자치조사회의에서도 헤이세이 26년(2014) 2월에 '가꿈(일본어로 '다마니')은 다마 이야기를 ~알수록 좋아져요~'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일 년 내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다마 지역의 매력을 전했습니다.



'가꿈은 다마 이야기를 ~알수록 좋아져요~' 심포지엄 모습

다마 도쿄 이관 120주년을 기념하여 다마의 역사를 정리한 책자 '다마 시정촌의 변천'이 발행되었다.

이 책자가 10년 전의 나야!



# 스포츠 축제 도쿄 2013

## 제68회 국민체육대회(다마 국체)

헤이세이 25년(2013), 11 일간의 회기로 개최된 제 68 회 국민체육대회에서는 정식 경기 37 경기·공개 경기 3 경기가 열렸는데, 다마 지역에서는 모든 지자체에서 정식 경기를 맡아 경기장 운영에 임했습니다.

산악, 자전거 로드 레이스, 하키 등 개최 지자체에게 생소한 경기는 시설 정비나 경기 운영에 대한 지역의 이해와 현지 스포츠 단체 등의 협조를 얻는 데 많은 고생을 거듭하면서 경기 대회 일정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블루임펠스가 편대 비행을 선보였다.



오메시 미타케 계곡에서 열린 카누 경기



육상 경기 모습 (아지노모토 스타디움)



하키 경기 모습 (히노시민육상경기장)

(출처: 도쿄도)

개·폐회식은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 개회식은 천황·황후의 참석하에 도쿄도지사가 개회 선언을 했으며 개회식 종료 시에는 불꽃놀이가 스타디움 전체를 화려하게 물들였습니다.

마스코트 캐릭터 '유리토'는 도민의 새 '유리카모메(붉은부리갈매기)'를 모티브로 탄생해 대회 홍보에 한몫했습니다. 다마의 시정촌에서는 국민체육대회 개최 1년 이상 전부터 각 시정촌의 이벤트에 '유리토'가 등장하여 아이들과 함께 유리토 댄스를 추는 등 국민체육대회의 분위기 조성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 대회 후 시정촌의 움직임

축구, 배구, 농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경기는 개최 지자체가 공동으로 준비와 운영을 실시함으로써 시구정촌의 울타리를 초월한 연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국민체육대회 개최는 다마 지역의 스포츠 활동 보급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히노데마치에서는 경기장이 된 축구장에서 많은 공식 시합이 열렸고 히노하라무라에서는 자전거 로드 레이스 개최를 계기로 매년 힐 클라임 레이스 < 사진 1 > 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사진 1 > 히노하라무라의 힐 클라임 레이스 모습 (히노하라무라 교육위원회 제공)

## 제13회 전국장애인스포츠대회

국민체육대회 종료 후 3 일간의 회기로 제 13 회 전국장애인스포츠대회가 개최되어 정식 경기(개인·단체) 13 경기, 오픈 경기 17 경기, 총 30 경기 중 다마 지역에서는 육상 경기와 양궁 < 사진 2 >, 볼링 등 9 경기가 실시되었습니다.

개·폐회식은 국민체육대회와 같이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조후시)에서 개최되었는데, 대회를 마무리하는 폐회식에서는 도쿄도지사로부터 이듬해 개최지인 나가사키현의 지사에게 대회기가 인계되었습니다. 각 선수단 퇴장 시에는 국민체육대회 선수들도 합류한 도쿄도 선수단이 각 게이트에서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작은 깃발을 교환하면서 교류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사진 2 > 양궁 경기 모습 (출처: 내각부 홈페이지)  
[https://www8.cao.go.jp/shougai/whitepaper/h26hakusho/zenbun/h1\\_06\\_01\\_05.html](https://www8.cao.go.jp/shougai/whitepaper/h26hakusho/zenbun/h1_06_01_05.html)

### COLUMN

#### 국민체육대회

국체라고 불리는 국민체육대회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혼란기인 쇼와 21년(1946)부터 일본 최대의 스포츠 제전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스포츠를 보급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지방문화 발전에도 기여하여 국민생활을 밝고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도쿄도에서는 제68회 국민체육대회(회기: 헤이세이 25년(2013) 9월 28일~10월 8일)가 쇼와 24년(1949)년의 제4회 국민체육대회, 쇼와 34년(1959)의 제14회 국민체육대회에 이은 3번째 개최였습니다. 헤이세이 22년(2010) 7월 일본체육협회 국제위원회에서 개최가 결정되어 같은 해 7월 31일에는 '스포츠 축제 도쿄 2013'이라는 대회 애칭과 '도쿄로, 다마로, 섬들로, 선수들이여 날아올라라'라는 대회 슬로건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다마 지역에서는 헤이세이 원년(1989) 11월에 도쿄도 시장회 및 도쿄도 정촌회가 도쿄도지사에게 '도쿄 다마 국체(가칭) 유치에 대하여'라는 요청을 한 경위가 있어 '다마 국체'라고도 불렸습니다.

제56회 국민체육대회 시 설립된 전국장애인스포츠대회(제13회)도 국민체육대회 종료 후(회기: 헤이세이 25년(2013) 10월 12일~14일)에 개최되었습니다.

#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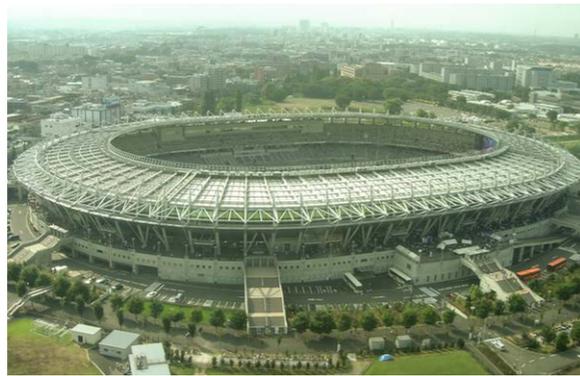
## 다마 지역에서 개최된 경기

레이와 2년(2020), 일본에서의 두 번째 올림픽인 제 32 회 도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연기되어 레이와 3년(2021)에 개최되었습니다.

올림픽 사상 최다인 33 경기 339 개 종목을 선보였으며 일본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일본은 역대 최다인 금 27, 은 14, 동 17, 합계 58 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다마 지역에서는 도쿄 스타디움 < 사진 1 > 에서 축구 경기, 근대 5 종 경기 및 럭비 경기가 실시되었고 무사시노의 숲 종합 스포츠 플라자 < 사진 2 > 에서 배드민턴 경기 및 근대 5 종 경기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자전거 로드 레이스가 무사시노의 숲 공원을 시작으로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을 경유해 시즈오카현의 후지스피드웨이를 골인 지점으로 하는 총 거리 남자 약 244km, 여자 147km의 코스로 실시되었습니다.

올림픽 종료 후 개최된 패럴림픽은 22 경기가 실시되어 일본은 금 13, 은 15, 동 23, 합계 51 개로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다마 지역에서는 무사시노의 숲 종합 스포츠 플라자 < 사진 2 > 에서 휠체어 농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 사진 1 > 올림픽 경기장이 된 도쿄 스타디움



< 사진 2 > 패럴림픽 경기장이 된 무사시노의 숲 종합 스포츠 플라자

## 다마 지역 지자체의 협력

도쿄 2020 대회에서는 사전 합숙이나 교류를 실시하는 호스트 타운에 전국 533 개 지자체가 등록했고 다마 지역에서도 15 개 지자체가 등록했지만, 코로나 19 감염 방지 대책을 요인으로 하는 상대국으로부터의 신청 및 지자체의 판단으로 중지한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사전 캠프를 실시한 지자체에서는 아이들과의 경기 체험이나 해외 요리 교실 등의 교류가 실시되어 대회 후에도 적극적인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사진 3 > < 사진 4 >.



< 사진 3 > 미국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와의 교류 (하치오지시 제공)



< 사진 4 > 칠레 요리 교실의 모습 (미타카시 제공)

## 올림픽 레거시를 위한 지자체 등의 대응

다마 지역의 대회 레거시를 미래에 전하기 위해 도쿄 2020 대회의 도내 코스 등을 활용한 자전거 로드 레이스 'THE ROAD RACE TOKYO'(주최: GRAND CYCLE TOKYO 실행위원회 / 공동 개최: 도쿄도)가 레이와 5년(2023)에 개최되었습니다.

후추시에서는 로드 레이스의 성지를 둘러보는 이벤트가 개최되었고 '자전거의 도시'로 알려진 이나기시에서는 시의 오리지널 캐릭터 '오네칸 전사 이나기 페달리온'이 탄생했습니다. 또한 하치오지시, 무사시노시, 미타카시, 후추시, 조후시, 다마시 등 각지에서 파라스포츠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보치아 < 사진 5 >'의 시민대회와 휠체어 농구 체험 < 사진 6 >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 사진 5 > 후추시의 파라스포츠 '보치아' 경기 모습 (후추시 제공)



< 사진 6 > 도쿄 2020 대회 개최 1년 후에 열린 '조후 서머 페스티벌 2022' 휠체어 농구 체험 모습 (조후시 제공)

### COLUMN

#### 지금까지의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

제 1 회 근대 올림픽이 개최된 것은 메이지 29년(1896)이지만, 일본이 처음으로 참가(육상 경기)한 대회는 다이쇼 원년(1912)의 제 5 회 스톡홀름 올림픽(스웨덴)이며 일본이 최초로 메달을 획득(테니스 경기)한 대회는 다이쇼 9년(1920)의 제 7 회 앤트워프 올림픽(벨기에)입니다.

일본에서의 첫 개최로 쇼와 15년(1940)에 제 12 회 도쿄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격화되는 중일전쟁으로 인해 일본은 개최권을 반납할 수밖에 없어 쇼와 39년(1964)에 일본 최초·아시아 최초로 제 18 회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다마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하치오지시에 가설 자전거 경기장이 설치되어 자전거 경기가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육상 경기에서는 국립경기장을 출발해 고슈 가도를 서쪽으로 나아가 후추시에서 반환하는 코스의 마라톤 종목과 50km 경보 종목이 실시되어 반환점에서는 많은 다마 지역 주민들이 성원을 보냈습니다.

패럴림픽은 제 1 회 대회가 쇼와 35년(1960)에 로마(이탈리아)에서 개최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올림픽 대회와 함께 개최되었습니다.

# 종장 앞으로의 다마

## 이제 모두 다마 박사!?

다마의 역사를 더듬어 봤는데, 어땠어?  
응? 뭐해?

좋았어, 완성!

다마에 관한 거라면 뭐든지 물어 봐!  
말겨줘!

두 사람은 어떤 게 인상에 남았어?  
이관을 반복하거나 주택지와 학원도시를 만들거나 했지  
지금의 도쿄가 있는 건 다마 덕분이야!

도쿄의 상황에 휘둘렸던 게 생각나네  
TAMA

그렇지도 모르겠네. 다마도 시와 정(町)의 합병이나 연계 등을 통해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갔지  
田無市 + 保谷市 = 西東京市  
秋川市 + 五日市町 = あきる野市

다마가 더더욱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어  
TAMA

맞아

둘 다 대견하네...

10年後...

역사를 알면 다마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잖아?  
응, 이제 완성됐어  
어때? 야마토?  
さくらりお

이 아유미짱을 10년 전의 우리 앞으로 타임슬립시켜서 다마의 역사를 가르치는 거야  
어른이 되어서 통감했어. 내가 살고 있는 다마에 대해서 전혀 몰랐구나,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던 그 시절의 우리라면 분명 이해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책이 갑자기 말을 하면 깜짝 놀라겠지

おわり

# 앞으로의 다마

## 01 다마 도시연합 ~ 또 하나의 도쿄

고도 성장기인 쇼와 30년대 이후 다마 지역은 도시화되는 한편, 산간 지역은 과소화가 진행되어 시정촌을 초월한 광역적인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시정촌의 관련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도쿄도 시정촌연합협회가 설치 (쇼와 39년 (1964)) 됩니다. 시정촌연합협회는 그 후 도쿄 시정촌의 장래에 걸친 공통 과제를 조사 연구하기 위해 도쿄 시정촌협의회로의 개편을 거쳐 쇼와 61년 (1986) 에 재단법인 도쿄 시정촌자치조사회 (헤이세이 24년 (2012) 에 공익재단법인으로 이행) 가 설립됩니다.

도쿄 시정촌자치조사회는 쇼와 63년 (1988), 『활력 있는 다마·도시의 창조 - 기본 제언 -』에서 '3 다마 격차 (41 페이지 참조) 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진흥책을 제시하고 '다마 도시연합' 을 촉구했습니다. 헤이세이 2년 (1990) 에는 『또 하나의 도쿄·다마의 창조 - 다마 그랜드 디자인 제언 -』에서 풍요로운 자연과 생활을 소중히 하는 다마의 미래상을 그렸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도 행정에서 '다마 도쿄 이관 100주년 기념사업' 이나 '다마 국제' 를 추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정촌의 쓰레기 행정을 광역적으로 운영하는 도쿄도 3 다마 지역 폐기물 광역처분조합 (현 도쿄 다마 광역자원순환조합, 쇼와 50년 (1975)) 이나 광역화하는 행정 과제에 적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니시타마 지역 광역행정권협의회 (쇼와 58년 (1983))·다마 북부 도시 광역행정권협의회 (쇼와 63년 (1988)) 가 설립된 것도 이 무렵입니다.

## 02 새로운 다마 지역

헤이세이 7년 (1995) 에는 아키가와시와 이쓰카이치마치가 합병하여 아키루노시가, 헤이세이 13년 (2001) 에는 다나시와 호야시가 합병하여 니시토쿄시가 탄생합니다. 같은 시기에 오다큐선·게이오선이 다마 센터까지 연장 (헤이세이 2년 (1990)), 다마 도시 모노레일 개통 (헤이세이 12년 (2000)), 게이오선·세이부 다마가와선의 연속 입체 교차 (헤이세이 5년 (1993), 헤이세이 18년 (2006)) 및 JR 주오선의 고가화 (헤이세이 19년 (2007)) 등 다마 지역의 남북 동선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잇달아 정비됩니다. 또한 니시타마에서는 수도권중앙연락자동차도로 오메 인터체인지가 개설 (헤이세이 8년 (1996)) 되었습니다.

도쿄도에서는 국토교통성의 제 5차 수도권 기본계획에 의해 도시정비국이 하치오지·다치카와·다마 (헤이세이 14년 (2002)), 마치다·사가미하라 (헤이세이 16년 (2004)), 오메 (헤이세이 21년 (2009)) 의 업무핵도시 기본구상을 책정했습니다. 총무국은 헤이세이 25년 (2013) 에 '새로운 다마의 비전' 을 발표, 헤이세이 29년 (2017) 에 '다마 진흥 플랜' 을 책정, 레이와 3년 (2021) 에는 '새로운 다마의 진흥 플랜' 을 책정했습니다.



도쿄도와 다마 30개 시정촌의 주최로 개최된 다마 도쿄 이관 130주년 기념 이벤트 '초타마란 박람회' (레이와 5년 (2023) 10월)



다마 도쿄 이관 130주년을 기념해 도쿄자치회관 1층 홀에서 열린 '사진으로 보는 다마의 지금과 옛날' 전시 모습 (공익재단법인) 도쿄 시정촌자치조사회)

## 03 다마의 변천 ~ '귀속', '확대', '자립'

다마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메이지 초년 (1868) 부터 고도 성장기까지 변천의 특징을 키워드를 이용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도쿄에 대한 '귀속' 입니다. 도쿄부 이관안과 도제 (都制)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두 반대는 상반되지만, 근거에 있는 것은 국가나 도쿄시의 사정으로 다마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도쿄부 이관부터 도제 시행까지 50년간 다마 지역은 도쿄에 속해 있으면서도, 제외될지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쿄의 '확대' 입니다. 간토 대지진 후 도쿄는 서쪽으로 신장해 나갑니다. 다마에는 별장과 학원 도시가 진출하였고 군 관련 시설 지대도 형성되어 갔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군 기지가 설치되었고 많은 단지와 공장의 건설, 그리고 다마 뉴타운 개발이 있었습니다. 계속 팽창하는 도쿄의 수용처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마의 '자립' 입니다. 대도시 도쿄의 발전을 뒷받침해 온 다마이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 진흥을 도모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독립 현 구상을 모색하고 도시계획이나 지자체 합병·연계에 대해서도 지역의 의향을 물었습니다.

## 04 '귀속', '확대', '자립', 그리고...

그럼 네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성장·확대의 시대에서 성숙·지속의 현재로 이어지는 시대에 걸맞는 키워드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다마 도시연합' 이나 '새로운 다마 지역' 외에 제 6장, 제 7장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 시의 지역을 초월한 지원과 다마 국제 운영에서의 시정촌 연계 등 현재의 다마로 이어지는 움직임을 되돌아보면 '연계' 는 하나의 후보가 될지도 모릅니다. 나아가 DX 나 탄소 중립 등 세계와 연동한 일본 사회의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 점도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이상적인 다마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네 번째 키워드를 찾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그것은 이 책을 읽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책이 다마 지역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참고 문헌

아오키 에이치  
'다마의 철도 -그 변천과 배경-' 다마의 변천 2, 다마 중앙신용금고, 1976

아마노 고지  
'전기·가스·수도' 다마의 변천 100, (재단법인) 다마신 지역문화재단, 2000

우메다 사다히로  
'왜 다마는 도쿄도가 되었는가,' 계야키 출판, 1993

게이오 전기궤도 주식회사 역음  
'게이오 전기궤도 주식회사 30년사,' 게이오 전기궤도, 1941

구니타치 향토문화관 역음  
'학원도시 개발과 환상의 철도 -격동의 시대에 탄생한 구니타치 대학촌-' 구니타치 향토문화관, 2010

고이케 기하치 지음, 히가시무라야마 고향역사관 역음  
'고이케 기하치 일기,' 히가시무라야마시, 2006

공익재단법인 특별구협의회 역음  
'도쿄 23구의 성립,' 공익재단법인 특별구협의회, 2011

고쿠분지시사 편찬위원회 역음  
'고향 고쿠분지의 변천,' 고쿠분지시, 1993

고다이라이시 중앙도서관 역음  
'다마 도쿄 이관 전사 자료전 사료집: 다마는 왜 도쿄인가,' 고다이라이시 중앙도서관, 1993

고다이라이시 중앙도서관 역음  
'다마 도쿄 이관 전사 자료전 도록,' 고다이라이시 중앙도서관, 1993

고다마 도시hiro  
'다마 지역과 TAMA(기술선진수도권지역)' 다마의 변천 109, (재단법인) 다마신 지역문화재단, 2003

(재단법인) 도쿄 시정촌자치조사회 역음  
'다마 도시계획사,' (재단법인) 도쿄 시정촌자치조사회, 1999

(재단법인) 다마신 지역문화재단 역음  
'다마의 전시 소개(疎開),' 다마의 변천 91, (재단법인) 다마신 지역문화재단, 1998

(재단법인) 다마신 지역문화재단 역음  
'20세기의 다마' 다마의 변천 100, (재단법인) 다마신 지역문화재단, 2000

(재단법인) 다마신 지역문화재단 역음  
'전시하의 지역사회' 다마의 변천 119, (재단법인) 다마신 지역문화재단, 2005

사토 고타로 지음, 다마 백년사연구회 역음  
'도쿄와 3다마 -도제 운동 참가의 기(記)-,' (재단법인) 도쿄 시정촌자치조사회, 1992

'사진집 다치카와' 편집위원회 역음  
'사진집 다치카와,' 다치카와시 교육위원회, 1990

스즈키 요시유키 지음  
'수도 방공망과 <공도> 다마,' 요시카와코분칸, 2012

다치카와시 역음  
'다치카와 기지,' 다치카와시, 1972

다마 그랜드 디자인 위원회 역음  
'또 하나의 도쿄, 다마의 창조 -다마 그랜드 디자인 제언,' (재단법인) 도쿄 시정촌자치조사회, 1990

다마 광역행정사 편찬위원회 역음  
'다마 광역행정사 -연계·합병의 계보-' (재단법인) 도쿄 시정촌자치조사회, 2002

다마 지역 및 도서 지역을 생각하는 위원회 역음  
'활력 있는 다마·도서의 창조 -기본 제언(중간 정리)-,' (재단법인) 도쿄 시정촌자치조사회, 1987

다마의 교통과 도시형성사 연구회 역음  
'다마 철도와 도시 정비의 변천,' I, II (재단법인) 도쿄 시정촌자치조사회, 1995

다마 백년사연구회 역음  
'다마 100년의 변천,' (재단법인) 도쿄 시정촌자치조사회, 1993

조후시 향토박물관 역음  
'향토박물관 소식,' 향토박물관 소식 56, 조후시 향토박물관, 1999

도쿄시 감사국 도시계획과 역음  
'도쿄 시역 확장사,' 도쿄시 감사국 도시계획과, 1934

도쿄시 감사국 도시계획과 역음  
'도쿄 도시계획 개요,' 도쿄시 감사국 도시계획과, 1937

도쿄도 역음  
'서남북 3다마 경역 변경 통람,' 도쿄도 공문서관, 1993

하치오지시 3다마군 인사 사진첩 편찬회 역음  
'다마의 사람들,' 하치오지시 3다마군 인사 사진첩 편찬회, 1928

파르테는 다마 역음  
'다마 뉴타운 개발의 궤적,' 파르테는 다마, 1998

파르테는 다마 역음  
'도시에서 아이들이 왔다 ~전시하의 다마와 학동 소개(疎開)~,' 파르테는 다마, 2013

후추시 정책총무부 홍보과 역음  
'그날의 후추,' 후추시, 2010

마치다시립 자유민권자료관 역음  
'다마 이관 100년展 -가나가와현에서 도쿄부로의 기록-' 마치다시립 자유민권자료관, 1993

마쓰야마 가오루  
'간토 지방의 구 군용비행장 철거지의 토지 이용 변화' 지학잡지 106(3), 도쿄지학협회, 1997

미타카시 교육위원회 역음  
'미타카 요시노 다이헤이 가문서 고찰집: 다마의 민권과 요시노 다이조,' 미타카시 교육위원회, 1999

무사시노시 건설부 녹화공원과 역음  
'도립 무사시노 중앙공원의 역사,' 무사시노시, 1989

와타나베 스스무, 쓰루마키 다카오 지음  
'이시자카 마사타카와 그 시대 -호농 민권가의 영광스럽고 비참한 생애,' 마치다 저널사, 1997

마치다시사 편찬위원회 역음  
'마치다시사,' 마치다시, 1974,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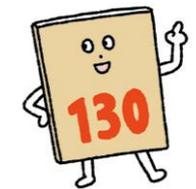
다마시사 편집위원회  
'다마시사,' 다마시, 1995-1998

레이와 4년도(2022) 구시정촌 방재사업 현황 도쿄도 총무국 종합방재부, 2022

광역 연계에 의한 재해 시 인적 지원에 대하여 도쿄도 시장회, 2012

레이와 2년도(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대처 하치오지시, 2021

레이와 3년도(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대처 하치오지시, 2022



## '다마 시정촌의 변천'

발행일 레이와 5년(2023) 12월 25일

발행 공익재단법인 도쿄 시정촌자치조사회  
(우)183-0052  
도쿄도 후추시 신마치 2-77-1 도쿄자치회관  
TEL 042-382-0068  
FAX 042-384-6057  
https://www.tama-100.or.jp

감수/집필 호사카 가즈후사  
(공익재단법인 다마신 지역문화재단)

130 기념 로고 마크 제작 마스다 유스케(무사시노시 직원)

제작 주식회사 게야키 출판

## 다마 도쿄 이관 130주년 기념

# '# 오시타마 포토 콘테스트' 수상 작품

다마 도쿄 이관 130주년을 기념하여 레이와 5년(2023)에 '# 오시타마 포토 콘테스트'가 개최되었습니다. 포토 콘테스트의 주제는 '내가 발견한, 오시타마 +( 좋아하는 다마 )'. 특설 웹사이트와 SNS, 포스터 등을 통해 공모한 결과, 3,000점이 넘는 투고·응모를 받았습니다.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로 선정된 수상 작품 10점을 소개합니다.



### < 최우수상 >

촬영자 kaoru\_kotetsu 님  
 촬영일 2022년 12월 13일  
 장소 다마시 게이오타마센터역 앞  
 에피소드 매년 개최되는 다마 센터 일루미네이션을 노광간 주밍으로 촬영해 SF 느낌의 사진으로 완성해 보았습니다.



### < 우수상 >

촬영자 lovedrea335 님  
 촬영일 2023년 4월 1일  
 장소 아키시마시·다치카와시 쇼와 기념공원  
 에피소드 고대하던 봄의 도래. 알록달록한 튜립가든에서 본 만개한 벚꽃과의 콜라보가 정말이지 호사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 < 우수상 >

촬영자 sky.hiromi 님  
 촬영일 2023년 7월 1일  
 장소 다치카와시 아즈사미텐 신사  
 에피소드 칠석의 계절, 경내가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뀝니다. 아이들의 귀여운 소리를 보면서 촬영을 즐겼습니다.



### < 우수상 >

촬영자 ken.t3104 님  
 촬영일 2023년 7월 15일  
 장소 조후시 진다이 지 절  
 에피소드 옛날에 이 근처에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다시 방문해 보았다가 샘물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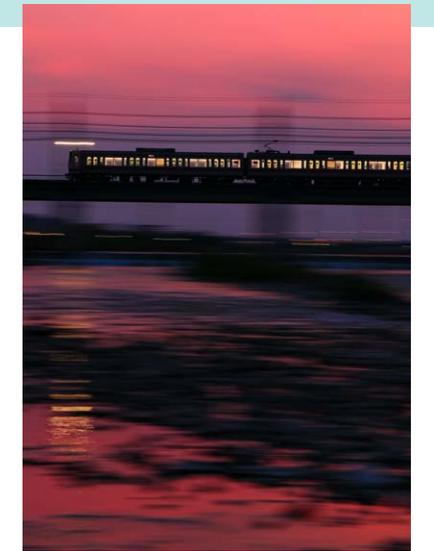
### < 우수상 >

촬영자 m\_t\_p\_photograph 님  
 촬영일 2023년 1월 9일  
 장소 하치오지시  
 미나미오사와 린부 육교  
 에피소드 육교와 건물의 선명한 색조가 귀엽고 예뻐서 촬영했습니다.



### < 우수상 >

촬영자 shimakura\_11 님  
 촬영일 2023년 6월 30일  
 장소 후추시  
 향토의 숲 박물관  
 에피소드 복원 건축물인 옛 후추마치 사무소 청사에서 촬영했습니다. 웬지 타임슬립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 < 우수상 >

촬영자 hiroyuki.morimoto 님  
 촬영일 2023년 6월 25일  
 장소 다마시 다마가와 강변  
 에피소드 저녁 무렵, 은은하게 노을진 하늘이 수면에 비친 다마가와 강. 거기에 게이오선의 실루엣을 팔로우 샷으로 곁들여 속도감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 < 우수상 >

촬영자 yujikawaii4911 님  
 촬영일 2023년 3월 24일  
 장소 오메시 히라마스 녹지  
 에피소드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짙은 핑크빛 벚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고 기분 좋게 미끄러지면서 놀고 있어서 서둘러 찍었습니다!



### < 우수상 >

촬영자 mi\_3192 님  
 촬영일 2019년 3월 31일  
 장소 다마시 곶타가와 강변  
 에피소드 벚꽃이 만발한 곶타가와 강. 석양을 받으니 정말 예뻐서 벚꽃의 새로운 일면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 < 오시타마상 >

촬영자 masaki\_naitou 님  
 촬영일 2020년 11월 21일  
 장소 아키루노시 이시부네바시 다리  
 에피소드 무사시이쓰카이치 지역에서 아키가와 강을 따라 단풍을 보면서 세오토노유까지 사진을 찍으며 트레킹했습니다. 세오토노유의 단풍도 물들어 있었는데, 족탕에 몸을 담그면서 보는 단풍도 아름다워 추천하고 싶은 장소입니다.